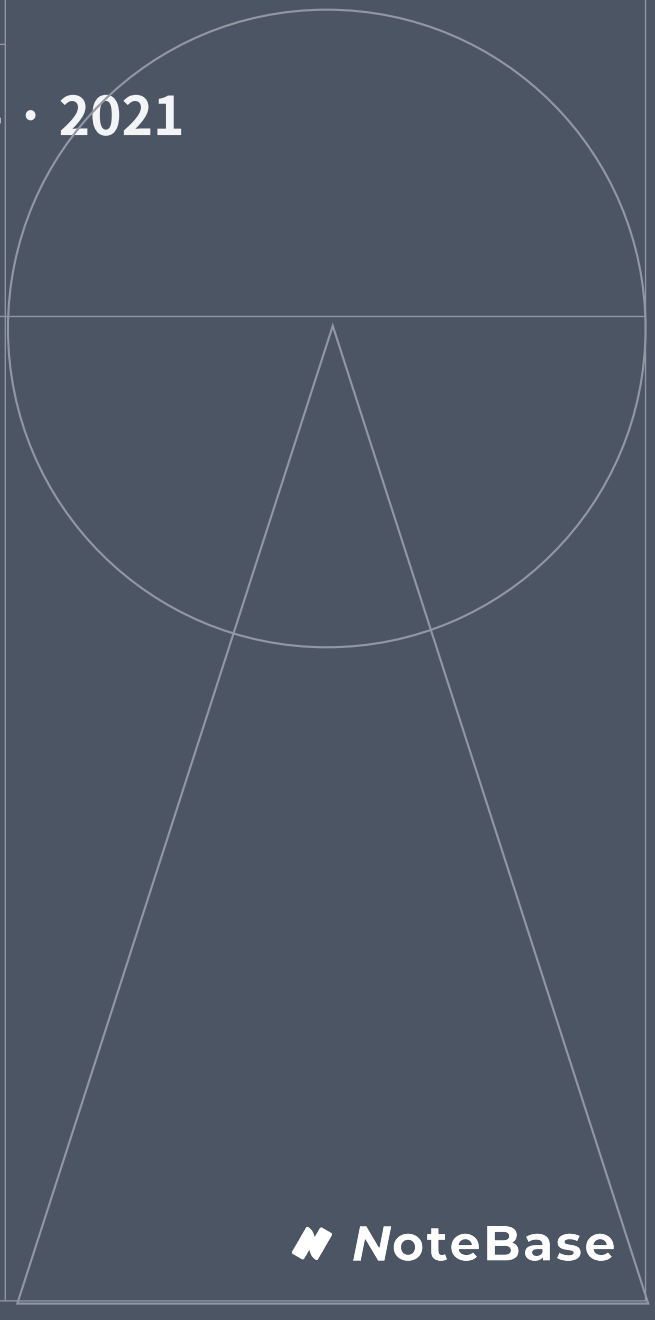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1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1

문 1.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②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③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④ 통상적으로 상호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에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⑤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범위, 원재료의 감액 기준, 원가배분 방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와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든 기타 원가로 구성된다. 보관원가는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에서 제외하지만,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보관원가는 포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현재의 장소와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② O. 완성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생산에 투입할 원재료와 기타 소모품은 원가 이하로 감액하지 않는다. 완성품 판매로 원재료 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를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보관원가만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그 밖의 보관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④ O. 통상적으로 상호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은 개별 항목별 원가를 특정하기 어렵고 선택적인 원가 배분이 가능하므로 개별법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
⑤ O. 성격과 용도가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한다. 성격이나 용도가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보관원가의 예외를 거꾸로 서술했다. '생산과정상 반드시 필요한 보관'은 원가에 포함하고, 일반적인 보관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출이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와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지 먼저 판단한다. 보관원가는 원칙적으로 비용이며, 후속 생산 전에 불가피한 보관일 때만 취득원가라는 예외를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보관원가는 원칙적으로 비용, 생산에 필수적인 보관만 재고자산 원가이다.

NoteBase

문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라면 상각방법과 관계없이 감가상각을 중단해야 한다.

②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③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다.

④ 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⑤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감가상각액을 인식할 수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중단 시점, 잔존가치·내용연수의 재검토 주기, 구성요소별 감가상각, 감가상각방법의 기초 및 공정가치와 감가상각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절차이다.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야 하며, 수익이 창출되는 형태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라면 상각방법과 관계없이 감가상각을 중단해야 한다'이다. 유형자산이 완전히 감가상각되지 않았다면 운휴하거나 적극적인 사용에서 제외되어도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다만 생산량비례법과 같은 사용량 기준 감가상각방법에서는 생산이 없을 때 감가상각액이 0이 될 수 있다.

② X
틀린 표현은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이다.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종전 추정치와 다르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다'이다. 전체 원가에 비해 원가가 유의적인 각 부분은 별도로 감가상각해야 하며,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기업이 선택하여 별도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④ O
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판매활동, 판매량·가격의 변동 등 자산의 경제적효익 소비와 무관한 요인의 영향도 받는다. 따라서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유형자산의 경제적효익 소비 형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X
틀린 표현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면 감가상각액을 인식할 수 없다'이다.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을 인식한다. 잔존가치가 장부금액과 같거나 더 커진 경우에만 잔존가치가 다시 장부금액보다 낮아질 때까지 감가상각액이 0이 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운휴'와 '감가상각 중단'을 곧바로 연결하고, ⑤는 '공정가치'와 감가상각 여부를 연결한 것이 함정이다. 감가상각 중단 여부는 단순한 미사용이나 공정가치 상승이 아니라 매각예정 분류·제거 여부, 감가상각 완료 여부 및 잔존가치와 장부금액의 관계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감가상각 선지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 형태를 반영하는가'를 먼저 확인한다. 이어서 잔존가치·내용연수는 매년 재검토하는지, 유의적인 구성요소는 별도 감가상각하는지, 운휴만으로 감가상각을 중단한다고 단정하는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소비 형태로 감가상각하고 수익 형태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잔존가치·내용연수는 매년 재검토하며, 단순 운휴나 공정가치 상승만으로 감가상각을 멈추지 않는다.

문 3.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본사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1,000,000, 잔존가치 ₩200,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였다. (주)세무는 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평가 회계처리를 한다. 동 건물의 각 연도 말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동 건물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20×1. 12. 31.	20×2. 12. 31.
₩700,000	₩800,000

① ₩25,000 감소

② ₩20,000 감소

③ ₩15,000 증가

④ ₩35,000 증가

⑤ ₩85,000 증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재평가증가액 중 당기손익으로 환입되는 금액을 함께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1,000,000
잔존가치: ₩200,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20×1년 말 공정가치: ₩700,000
20×2년 말 공정가치: ₩800,000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장부금액-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이다.
재평가증가액은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의 범위까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인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20×2년도 당기순이익 영향은 재평가이익의 당기손익 환입액에서 20×2년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최초 연간 감가상각비는 (₩1,000,000-₩200,000)/(5년)=₩160,000이다.
2. 20×1년 말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840,000이고 공정가치는 ₩700,000이므로, 재평가감소액 ₩140,000을 20×1년도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3. 20×1년 말 재평가 후 장부금액 ₩700,000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년 감가상각비는 (₩700,000-₩200,000)/(4년)=₩125,000이다.
4. 20×2년 말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575,000이고 공정가치는 ₩800,000이므로 재평가증가액은 ₩225,000이다. 이 중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140,000은 당기이익으로 환입하고, 나머지 ₩85,000은 재평가잉여금으로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5. 20×2년도 당기순이익 영향은 ₩140,000 증가−₩125,000 감소=₩15,000 증가이다.

선지 판단

① X — 당기손익 환입액 ₩140,000에서 감가상각비 ₩125,000을 차감하면 감소가 아니라 ₩15,000 증가이다. '₩25,000 감소'는 '₩15,000 증가'로 고쳐야 한다.
② X — 20×2년 감가상각비와 재평가이익의 당기손익 환입을 함께 반영한 순효과는 ₩15,000 증가이다. '₩20,000 감소'는 '₩15,000 증가'로 고쳐야 한다.
③ O — 재평가이익의 당기손익 환입 ₩140,000에서 감가상각비 ₩125,000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15,000 증가한다.
④ X —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순액은 ₩35,000이 아니라 ₩15,000이다. '₩35,000 증가'는 '₩15,000 증가'로 고쳐야 한다.
⑤ X — ₩85,000은 재평가증가액 중 과거 재평가손실의 환입 범위를 초과하여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재평가잉여금이므로 당기순이익 증가액이 아니다. '₩85,000 증가'는 '₩15,000 증가'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20×2년 말 재평가증가액 ₩225,000 전부가 당기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 당기손실로 처리한 ₩140,000만 당기손익으로 환입되고, 초과액 ₩85,000은 기타포괄손익에 들어간다. 또한 당기순이익의 순효과를 구할 때 20×2년 감가상각비 ₩125,000도 반드시 차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평가모형의 당기순이익 영향을 묻는 경우에는 먼저 재평가 후 장부금액으로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재평가증가액 중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감소액의 환입분만 당기이익에 포함한 뒤 두 금액을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재평가증가액은 '과거 손익상 손실까지는 당기이익 환입, 초과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한다.

NoteBase

문 4. (주)세무는 20x1년 7월 1일에 영업지점 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x2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20x1년도 영업지점 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x1년 10월 1일 지출액 중 ₩240,000은 당일에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으로 지출되었다.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은 매년 말 이자지급 조건이다. 특정차입금 중 ₩200,000은 20x1년 7월 1일부터 20x1년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연 10%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일시적 운용수익을 획득하였다. 신축중인 영업지점 건물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x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며,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구분	20×1. 7. 1.	20×1. 10. 1.	20×1. 12. 1.
공사대금 지출액	₩300,000	₩960,000	₩1,200,000

차입금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일	연 이자율
특정차입금	20×1. 7. 1.	₩500,000	20×2. 6. 30.	8%
일반차입금 A	20×1. 1. 1.	500,000	20×2. 12. 31.	8%
일반차입금 B	20×1. 7. 1.	1,000,000	20×3. 6. 30.	6%

① ₩15,000

② ₩31,100

③ ₩49,300

④ ₩62,300

⑤ ₩85,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적격자산의 차입원가는 특정차입금의 실제 차입원가에서 일시적 운용수익을 차감하고, 특정차입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에는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조건 정리

공사기간은 20x1년 7월 1일부터이므로 20x1년 자본화기간은 6개월이다.
20x1년 10월 1일 지출액 960,000원 중 정부보조금 240,000원은 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므로 차입원가 계산 대상 지출액은 720,000원이다.
특정차입금 500,000원 중 300,000원은 7월 1일 지출에 사용되고, 남은 200,000원은 10월 1일 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반차입금이 부담하는 지출액은 10월 1일 520,000원과 12월 1일 1,200,000원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특정차입금 자본화액=자본화기간의 실제 이자비용-일시적 운용수익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일반차입금의 기간가중 이자비용일반차입금의 기간가중 평균장부금액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일반차입금이 부담한 연평균지출액×자본화이자율
특정차입금은 적격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차입한 금액이므로 실제 발생액에서 운용수익을 빼고, 이를 초과하는 지출에만 일반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계산 과정

1. 특정차입금의 이자비용은 500,000원 × 8% × $\frac{6}{12}$ = 20,000원이다. 일시적 운용수익은 200,000원 × 10% × $\frac{3}{12}$ = 5,000원이므로 특정차입금 자본화액은 20,000원 - 5,000원 = 15,000원이다.
2. 일반차입금 A의 20x1년 이자비용은 500,000원 × 8% = 40,000원이고, 일반차입금 B의 이자비용은 1,000,000원 × 6% × $\frac{6}{12}$ = 30,000원이다. 기간가중 평균장부금액은 500,000원 + 1,000,000원 × $\frac{6}{12}$ = 1,000,000원이므로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은 $\frac{40,000+30,000}{1,000,000}$ = 7%이다.
3. 일반차입금이 부담한 연평균지출액은 520,000원 × $\frac{3}{12}$ + 1,200,000원 × $\frac{1}{12}$ = 230,000원이다. 따라서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230,000원 × 7% = 16,100원이다.
4. 20x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15,000원 + 16,100원 = 31,1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15,000원은 특정차입금 자본화액만 계산한 금액으로, 일반차입금 자본화액 16,100원을 누락하였다. 올바른 총액은 31,100원이다.
② O. 특정차입금 자본화액 15,000원과 일반차입금 자본화액 16,100원의 합계인 31,100원과 일치한다.
③ X. 49,300원은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에 관한 위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총액은 31,100원이다.
④ X. 62,300원은 기간가중 지출액과 7%의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총액은 31,100원이다.
⑤ X. 85,000원은 특정차입금 운용수익 차감과 지출시점별 월할 계산을 반영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총액은 31,1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15,000원은 특정차입금 부분만 계산하고 일반차입금 부분을 빠뜨릴 때 선택하기 쉽다. 또한 10월 1일 지출액에서 정부보조금 240,000원을 먼저 차감하고, 일반차입금 B는 7월 1일 차입이므로 이자비용과 평균장부금액을 모두 6개월로 월할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정부보조금 등 지출액 차감항목을 반영하고, 특정차입금의 실제 이자에서 일시적 운용수익을 뺀다. 그다음 특정차입금을 초과한 지출을 시점별로 월할하여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고 두 금액을 합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특정차입금은 실제 이자에서 운용수익을 차감하고, 초과지출은 기간가중 일반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문 5. (주)세무는 20x1년 7월 1일 관리부서에서 사용할 설비를 ₩1,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설비는 복구의무가 있으며, 내용연수 종료 후 원상복구를 위해 지출할 복구비용은 ₩300,000으로 추정된다. (주)세무는 동 설비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수합계법(잔존가치 ₩200,000, 내용연수 4년)으로 감가상각 한다. 동 설비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x2년도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현재가치에 적용할 할인율은 연 10%이며, 이후 할인율의 변동은 없다. 10%, 4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6830이다.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은 월할로 계산한다.)

① ₩301,470

② ₩322,985

③ ₩351,715

④ ₩373,230

⑤ ₩389,335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복구충당부채의 최초 현재가치를 설비 원가에 포함한 뒤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와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20x2년도 당기비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설비 취득원가는 취득대가 1,000,000원에 복구의무의 현재가치 204,900원을 더한 1,204,900원이다. 잔존가치 200,000원을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004,900원이며, 내용연수 4년의 연수합계는 $4 + 3 + 2 + 1 = 10$이다. 설비를 20x1년 7월 1일 취득했으므로 20x2년에는 최초 연도 상각률 4/10을 6개월, 둘째 연도 상각률 3/10을 6개월 적용한다.

사용할 공식

복구충당부채 최초 인식액은 $300{,}000 \times 0.6830 = 204{,}900$원이다. 설비 취득원가는 $1{,}000{,}000 + 204{,}900 = 1{,}204{,}900$원이고,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204{,}900 - 200{,}000 = 1{,}004{,}900$원이다.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남은 내용연수의 비율을 곱하므로, 20x2년 감가상각비는 취득 후 첫 6개월분과 다음 6개월분을 나누어 계산한다.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x1년 감가상각비는 1,004,900 × (4/10) × (6/12) = 200,980원이다.
2. 20x2년 감가상각비는
1,004,900 × (4/10) × (6/12) + 1,004,900 × (3/10) × (6/12) = 200,980 + 150,735 = 351,715원이다.
3. 20x1년 이자비용은 204,900 × 10% × (6/12) = 10,245원이므로, 20x2년 초 복구충당부채는 204,900 + 10,245 = 215,145원이다.
4. 20x2년 이자비용은 215,145 × 10% = 21,514.5원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1,515원이다.
5. 20x2년도 당기비용은 감가상각비 351,715원과 이자비용 21,515원의 합계인 373,23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301,470원은 감가상각비 351,715원과 이자비용 21,515원을 합한 금액이 아니다. 틀린 금액 301,470원은 올바르게는 373,230원이다.
② X — 322,985원은 복구의무의 현재가치를 설비 원가에 포함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와 충당부채 이자비용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322,985원은 올바르게는 373,230원이다.
③ X — 351,715원은 20x2년 감가상각비만 반영한 금액으로,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21,515원이 빠졌다. 틀린 금액 351,715원은 올바르게는 373,230원이다.
④ O — 20x2년 감가상각비 351,715원과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21,515원을 합하면 373,230원이다.
⑤ X — 389,335원은 위 두 당기비용의 정확한 합계보다 16,105원 많다. 틀린 금액 389,335원은 올바르게는 373,23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감가상각비 계산을 마친 뒤 복구충당부채의 할인액 상각에 따른 이자비용을 누락하도록 만든 함정이다. 또한 복구비용 300,000원을 그대로 설비 원가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치 204,900원을 더해야 하며, 7월 1일 취득이므로 연수합계법의 두 상각률을 각각 6개월씩 적용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복구의무가 있는 유형자산은 복구지출 추정액의 현재가치를 먼저 구해 자산 원가와 충당부채에 동시에 반영한다. 이후 자산에서는 감가상각비, 충당부채에서는 할인액 상각에 따른 이자비용이 발생하므로, 당기비용을 묻는 경우 두 금액을 모두 계산하여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복구의무의 현재가치는 취득 시 자산 원가와 충당부채에 함께 반영되고, 이후에는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으로 나뉘어 비용화된다.

NoteBase

문 6.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금융회사인 (주)대한에 장부금액 ₩500,000의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 (주)세무는 동 매출채권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주)대한은 양도받은 동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한편 (주)세무는 매출채권 양도 후 5개월간 동 매출채권의 손상발생에 대해 ₩100,000까지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였으며, 동 보증의 공정가치(보증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는 ₩20,000이다. (주)세무가 동 매출채권을 양도하면서 (주)대한으로부터 보증의 대가를 포함하여 ₩480,000을 수령하였다면, (주)세무가 20x1년 1월 1일 매출채권 양도시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① ₩20,000

② ₩40,000

③ ₩80,000

④ ₩100,000

⑤ ₩120,0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않고 보증 형태의 지속적 관여를 인식할 때, 관련 부채를 보증 한도와 보증의 공정가치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매출채권 장부금액: ₩500,000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음
양수인의 제3자 매도 능력: 없음
손상 보증 한도: ₩100,000
보증의 공정가치: ₩20,000
현금 수령액: ₩480,000
양수인이 매출채권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없으므로 양도자는 통제를 계속 보유한다. 따라서 보증에 따른 지속적 관여의 범위에서 매출채권과 관련 부채를 계속 인식한다.

사용할 공식

보증에 따른 지속적 관여 금액은 다음과 같다.
(매출채권 장부금액, 보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
관련 부채의 최초 측정액은 다음과 같다.
지속적 관여 금액+보증의 공정가치
보증은 양도자가 부담하는 지급의무와 별도의 보증가치를 함께 발생시키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지속적 관여 금액은 ₩500,000과 ₩100,000 중 작은 금액인 ₩100,000이다.
2. 관련 부채에는 지속적 관여 금액 ₩100,000과 보증의 공정가치 ₩20,000을 포함한다.
3. 따라서 부채 인식액은 ₩100,000 + ₩20,000 = ₩120,000이다. 현금 수령액 ₩480,000에 보증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보증의 공정가치를 부채 측정에서 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선지 판단

① X — ₩20,000은 보증의 공정가치만 반영한 금액이다. 지속적 관여 금액 ₩100,000도 더해야 하므로 올바른 부채 금액은 ₩120,000이다.
② X — ₩40,000은 수령액과 장부금액의 차이 ₩20,000에 보증의 공정가치 ₩20,000을 더한 값에 불과하다. 관련 부채는 매출채권의 단순 차액이 아니라 지속적 관여 금액과 보증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120,000이다.
③ X — ₩80,000은 보증 한도 ₩100,000에서 보증의 공정가치 ₩20,000을 잘못 차감한 금액이다. 보증의 공정가치는 차감하지 않고 더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120,000이다.
④ X — ₩100,000은 보증 한도이자 지속적 관여 금액만 반영한 값이다. 보증의 공정가치 ₩20,000도 포함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120,000이다.
⑤ O — 지속적 관여 금액 ₩100,000에 보증의 공정가치 ₩20,000을 더한 ₩120,000이 관련 부채의 인식액이다.

오답 포인트

보증 한도 ₩100,000만을 부채로 보아 ④를 고르거나, 보증의 공정가치 ₩20,000을 차감하여 ③을 고르기 쉽다. 보증의 공정가치는 지속적 관여 금액에 가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 양수인의 자유로운 매도 능력으로 통제 이전 여부를 확인한다. 통제를 계속 보유하고 보증으로 지속적 관여가 남으면 '장부금액과 최대 보증액 중 작은 금액'을 구한 뒤 보증의 공정가치를 더하여 관련 부채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보증형 지속적 관여의 관련 부채 = 지속적 관여 금액 + 보증의 공정가치이다.

NoteBase

문 7.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차량운반구를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정액법 상각)하였다. 동 차량운반구의 20x1년 말 장부금액은 ₩560,000이며, 동 차량운반구와 관련하여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감가상각비 ₩120,000과 손상차손 ₩20,000이다. (주)세무가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동 차량운반구와 관련하여 손상차손과 감가상각비로 총 ₩130,000을 인식하였다면, 20x2년 말 동 차량운반구의 회수가능액은? (단, (주)세무는 차량운반구 취득 후 차량운반구에 대해 추가적인 지출을 하지 않았으며, 차량운반구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① ₩410,000

② ₩415,000

③ ₩420,000

④ ₩425,000

⑤ ₩430,0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손상차손을 인식한 유형자산은 손상 후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고,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과 같아진다는 점을 이용해 회수가능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120,000원 × 5년 + 100,000원 = 700,000원이다.
20x1년 말 장부금액: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을 반영한 후 560,000원이다.
20x2년 초 남은 내용연수: 4년이다.
20x2년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의 합계: 130,000원이다.

사용할 공식

20x2년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손상 후 장부금액-잔존가치)/(남은 내용연수)
20x2년 손상차손은 총비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다. 손상차손이 발생하면 손상 인식 직전 장부금액에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이 회수가능액이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x2년 감가상각비는 (560,000원 - 100,000원) ÷ 4년 = 115,000원이다.
2. 20x2년 손상차손은 130,000원 - 115,000원 = 15,000원이다.
3. 감가상각 후 손상 인식 직전 장부금액은 560,000원 - 115,000원 = 445,000원이다.
4. 회수가능액은 445,000원 - 15,000원 = 430,000원이다.

검산하면 20x2년 초 장부금액 560,000원에서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의 합계 130,000원을 차감한 금액도 43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410,000원은 계산된 회수가능액 43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410,000원은 올바르게는 430,000원이다.
② X — 415,000원은 감가상각비 115,000원과 손상차손 15,000원을 모두 반영한 장부금액이 아니다. 틀린 금액 415,000원은 올바르게는 430,000원이다.
③ X — 420,000원은 20x2년 총비용 130,000원을 20x2년 초 장부금액 560,000원에서 차감한 결과와 다르다. 틀린 금액 420,000원은 올바르게는 430,000원이다.
④ X — 425,000원은 손상 인식 직전 장부금액 445,000원에서 손상차손 15,000원을 차감한 결과와 다르다. 틀린 금액 425,000원은 올바르게는 430,000원이다.
⑤ O — 20x2년 말 회수가능액은 430,000원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20x2년 감가상각비를 최초 취득원가 기준의 120,000원으로 계속 계산하면 안 된다. 20x1년에 손상차손을 인식했으므로 20x2년 감가상각비는 손상 후 장부금액 560,000원에서 잔존가치 100,000원을 뺀 금액을 남은 4년에 배분한 115,000원이다. 또한 20x1년 손상차손 20,000원을 20x2년 계산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손상된 유형자산 문제에서는 먼저 손상 후 장부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남은 내용연수의 감가상각비를 다시 계산한다. 그다음 총비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손상차손을 구하고, 손상 인식 직전 장부금액에서 손상차손을 차감해 회수가능액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손상 후 감가상각은 '손상 후 장부금액－잔존가치'를 남은 내용연수에 배분한다.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이다.

NoteBase

문 8. 20x1년 초에 설립한 (주)세무는 유사성이 없는 두 종류의 상품 A와 상품 B를 판매하고 있다. (주)세무는 20x1년 중 상품 A 200단위(단위당 취득원가 ₩1,000)와 상품 B 200단위(단위당 취득원가 ₩2,000)를 매입하였으며, 20x1년 말 상품재고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상품 A의 재고 중 20단위는 (주)대한에 단위당 ₩900에 판매하기로 한 확정판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보유 중이다. 확정판매계약에 의한 판매시에는 판매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반판매의 경우에는 상품 A와 상품 B 모두 단위당 ₩300의 판매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세무가 20x1년도에 인식할 매출원가는? (단, 정상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며, 상품 A와 상품 B 모두 감모의 70%는 정상감모이다.)

	장부수량	실제수량	단위당 취득원가	단위당 예상 판매가격
상품 A	50	30	₩1,000	₩1,300
상품 B	100	70	2,000	2,200

① ₩410,000

② ₩413,000

③ ₩415,000

④ ₩423,000

⑤ ₩439,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의 차이에서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를 구분하고, 실제 재고에는 상품별 순실현가능가치를 적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재고는 없고 매입원가는 상품 A 200,000원, 상품 B 400,000원이다.
장부수량은 A 50단위, B 100단위이고 실제수량은 A 30단위, B 70단위이므로 감모수량은 각각 20단위와 30단위이다. 감모의 70%만 정상감모이므로 정상감모는 A 14단위, B 21단위이고 비정상감모는 A 6단위, B 9단위이다.
상품 A의 실제 재고 30단위 중 20단위는 확정판매계약용이며 판매비용이 없다. 나머지 A 10단위와 B 70단위는 일반판매 시 단위당 판매비용 300원이 발생한다. 유사성이 없는 A와 B는 저가법을 상품별로 적용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 = 장부상 판매분의 원가 + 정상감모손실 + 재고자산평가손실이다. 비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가 아니라 별도 손실이므로 제외한다.
순실현가능가치 = 예상판매가격 - 예상판매비용이며, 확정판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수량은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순실현가능가치를 산정한다.

계산 과정

1. 장부상 판매분의 원가
상품 A: (200단위 - 장부수량 50단위) × 1,000원 = 150,000원
상품 B: (200단위 - 장부수량 100단위) × 2,000원 = 200,000원
합계는 350,000원이다.

2. 정상감모손실
상품 A: 20단위 × 70% × 1,000원 = 14,000원
상품 B: 30단위 × 70% × 2,000원 = 42,000원
합계는 56,000원이다. 비정상감모손실 24,000원은 매출원가에서 제외한다.

3. 재고자산평가손실
상품 A 확정계약분 20단위: 순실현가능가치가 단위당 900원이므로 20단위 × (1,000원 - 900원) = 2,000원이다.
상품 A 일반판매분 10단위: 순실현가능가치는 1,300원 - 300원 = 1,000원으로 취득원가와 같아 평가손실이 없다.
상품 B 70단위: 순실현가능가치는 2,200원 - 300원 = 1,900원이므로 70단위 × (2,000원 - 1,900원) = 7,000원이다.
평가손실 합계는 9,000원이다.

4. 최종 매출원가
350,000원 + 56,000원 + 9,000원 = 415,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410,000원은 장부상 판매분 원가 350,000원, 정상감모손실 56,000원, 평가손실 9,000원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매출원가 415,000원이다.
② X — 413,000원은 상품 B의 평가손실 7,000원만 반영하고 상품 A 확정계약분의 평가손실 2,000원을 빠뜨린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두 상품의 평가손실 9,000원을 모두 반영한 415,000원이다.
③ O — 350,000원 + 56,000원 + 9,000원 = 415,000원이므로 옳다.
④ X — 423,000원은 위 세 구성액의 합계보다 8,000원 과대하다. 올바르게는 비정상감모손실을 제외하고 계산한 415,000원이다.
⑤ X — 439,000원은 정상감모손실뿐 아니라 비정상감모손실 24,000원까지 매출원가에 더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비정상감모손실을 별도 손실로 처리하여 매출원가를 415,000원으로 계산한다.

오답 포인트

감모수량 전부를 매출원가에 넣으면 ⑤가 된다. 정상감모 70%만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감모 30%는 제외해야 한다. 또한 상품 A의 확정계약분은 일반판매가격이 아니라 계약가격 900원을 적용하며 판매비용도 차감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장부상 판매분 원가를 구한 뒤 감모를 정상·비정상으로 나누고, 실제 남은 재고에 상품별 순실현가능가치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장부상 판매분 원가에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만 더한다.

암기 포인트

매출원가에는 정상감모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더하고, 비정상감모는 제외한다. 확정판매계약분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서 계약 이행에 필요한 판매비용을 차감하여 구한다.

NoteBase

문 9. 20x1년 1월 1일 (주)세무는 (주)대한이 동 일자에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매년 말 이자지급)를 ₩950,252에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며, (주)세무는 동 사채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주)세무는 20x1년 중 사업모형을 변경하여 동 사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 20x1년 말 동 사채의 신용위험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10,000이다. (주)세무는 20x1년 말과 20x2년 말에 표시이자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동 사채의 각 연도 말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는 20x1년 말의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주)세무의 동 사채관련 회계처리가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0×1. 12. 31.	20×2. 12. 31.
공정가치	₩932,408	₩981,828

① ₩16,551 감소

② ₩22,869 감소

③ ₩26,551 증가

④ ₩96,551 증가

⑤ ₩106,551 증가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TPL)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때 누적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재분류 후의 공정가치 변동과 이자수취 효과를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950,252원
액면금액: 1,000,000원
표시이자율: 연 8%, 매년 말 현금이자 80,000원
유효이자율: 연 10%
20×1년 말 공정가치 및 재분류일 공정가치: 932,408원
20×2년 말 공정가치: 981,828원
20×1년 말 12개월 기대신용손실: 10,000원
사업모형 변경에 따른 재분류일은 변경 후 최초 보고기간의 첫날이므로, 누적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재분류 효과가 20×2년도에 반영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20×1년 말 상각후원가:
$950{,}252 + (950{,}252 \times 10\%) - 80{,}000 = 965{,}277$

20×1년 말 누적 기타포괄손익:
$(932{,}408 - 965{,}277) + 10{,}000 = -22{,}869$

20×2년 FVTPL 총손익:
$80{,}000 + (981{,}828 - 932{,}408) = 129{,}420$

FVOCI 채무상품의 손상차손 10,000원은 당기손익에 인식하되 자산의 공정가치를 직접 줄이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에 대응 금액을 인식한다. 따라서 재분류할 순누적 기타포괄손익은 공정가치 차이 -32,869원에 10,000원을 더한 -22,869원이다.

계산 과정

1. 20×1년 유효이자수익은 950,252원 × 10% = 95,025원이고, 현금이자 80,000원을 차감한 20×1년 말 상각후원가는 965,277원이다.
2. 공정가치 932,408원과 상각후원가 965,277원의 차이는 -32,869원이다. 여기에 FVOCI 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에 대응하여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10,000원을 합하면 순누적 기타포괄손익은 -22,869원이다. 재분류일에 이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므로 20×2년도에 22,869원의 손실이 반영된다.
3. 재분류 후 FVTPL 금융자산의 20×2년 총손익은 수령한 이자 80,000원과 공정가치 증가액 49,420원의 합계인 129,420원이다.
4. 따라서 20×2년도 당기순이익 영향은 129,420원 - 22,869원 = 106,551원 증가이다.

선지 판단

① X — 20×2년 FVTPL 총이익 129,420원에서 누적 기타포괄손익 재분류손실 22,869원을 차감하므로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지 않는다. '16,551원 감소'는 틀리고, 올바르게는 '106,551원 증가'이다.
② X — 22,869원은 재분류일에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누적 기타포괄손실만을 본 금액이다. 20×2년의 이자수취와 공정가치 상승에 따른 129,420원의 이익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106,551원 증가'이다.
③ X — 26,551원은 공정가치 증가액 49,420원에서 재분류손실 22,869원만 차감하고 현금이자 80,000원을 누락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106,551원 증가'이다.
④ X — 96,551원은 기대신용손실 10,000원의 기타포괄손익 대응 금액을 무시하여 재분류손실을 -22,869원이 아니라 -32,869원으로 처리할 때 나오는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106,551원 증가'이다.
⑤ O — 20×2년 FVTPL 총이익 129,420원에서 누적 기타포괄손익 재분류손실 22,869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106,551원 증가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FVOCI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차이 -32,869원 전부를 재분류손실로 보는 것이다. 기대신용손실 10,000원은 이미 20×1년 당기손익에 손상차손으로 반영되고 기타포괄손익에는 대응 금액이 인식되므로, 재분류일의 순누적 기타포괄손익은 -22,869원이다. 또한 20×2년 FVTPL 손익에는 공정가치 증가액 49,420원뿐 아니라 수령이자 80,000원도 포함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FVOCI 채무상품의 FVTPL 재분류 문제는 '재분류 직전 상각후원가 계산 → 공정가치 차이와 손상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합산 → 누적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 재분류 후 이자와 공정가치 변동을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FVOCI 채무상품에서 FVTPL로 재분류하면 자산은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순누적 기타포괄손익은 재분류일의 당기손익으로 옮긴다.

NoteBase

문 10.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무제표는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께 공표되는 그 밖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식별되어야 한다.

②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중요성에 따라 상이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③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므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④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하더라도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⑤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한다면 부적절한 회계정책도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재무제표 표시의 기본 원칙인 재무제표의 식별, 동등한 비중, 중요성과 통합, 상계 금지 및 회계정책 공시의 한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무제표 표시 원칙은 이용자가 재무정보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재무제표를 다른 정보와 구분하고, 중요한 정보는 적절히 구분하여 표시하며,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은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계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식별: 재무제표와 주석은 같은 공표 문서의 다른 정보와 명확히 구분한다.
중요성과 통합: 중요한 유사항목의 종류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성격이나 기능이 다른 항목도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합할 수 있다.
상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기준서가 요구·허용하거나 동일 거래의 수익과 관련 비용을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순액 표시가 가능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재무제표는 같은 문서에 함께 공표되는 그 밖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식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중요성에 따라 상이한 비중'이다. 전체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무제표는 중요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이다. 성격이나 기능이 다른 항목은 원칙적으로 구분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면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더라도 …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이다. 동일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과 관련 비용의 순액 표시가 그 거래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충분히 설명한다면 부적절한 회계정책도 정당화될 수 있다'이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사용한 정책을 공시하거나 주석·보충 자료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②는 '중요성'이라는 익숙한 말을 이용해 재무제표 간 비중 원칙을 바꾸고, ③은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통합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한다. ④는 상계 금지 원칙만 강조하면서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는 순액 표시의 예외를 지우고, ⑤는 추가 공시가 잘못된 회계처리 자체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무제표 표시는 '다른 정보와 명확히 구분, 각 재무제표는 동등한 비중,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 가능, 상계는 원칙적 금지이나 실질을 반영하는 허용 사례 존재, 공시로 부적절한 회계정책을 치유할 수 없음'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구분은 명확하게, 비중은 동등하게, 비중요 항목은 통합 가능하게, 상계는 예외적으로, 잘못된 정책은 공시로 치유할 수 없게 기억한다.

NoteBase

문 11. 20x1년 초 (주)세무는 (주)대한의 주주들에게 현금 ₩700,000을 지급하고 (주)대한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당시 (주)대한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한편, 합병일 현재 (주)세무는 (주)대한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식별가능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프로젝트를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의 공정가치를 ₩50,000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하였다. 20x1년 초 (주)세무가 합병 시 인식할 영업권은?

	장부금액	공정가치
자산	₩3,000,000	₩3,200,000
부채	2,700,000	2,800,000

① ₩250,000

② ₩300,000

③ ₩350,000

④ ₩400,000

⑤ ₩45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와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차이로 영업권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이전대가: 현금 700,000원
식별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치: 3,200,000원
별도로 식별된 진행 중인 연구개발프로젝트의 공정가치: 50,000원
인수한 부채의 공정가치: 2,800,000원
주의할 조건: 취득한 자산과 부채는 장부금액이 아니라 취득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피취득자가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식별가능하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개발프로젝트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자산으로 인식한다.

사용할 공식

$FVNA = 3{,}200{,}000 + 50{,}000 - 2{,}800{,}000$

$GW = C - FVNA$

여기서 $FVNA$는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C는 이전대가, GW는 영업권이다. 사업결합의 영업권은 이전대가 중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식별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3,200,000원에 별도 인식하는 연구개발프로젝트 50,000원을 더한 3,250,000원이다.
2.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3,250,000원 - 2,800,000원 = 450,000원이다.
3. 영업권은 700,000원 - 450,000원 = 25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된 영업권 250,000원과 일치한다.
② X — 300,000원은 연구개발프로젝트 50,000원을 별도의 식별가능한 자산에서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이를 포함하여 영업권을 250,000원으로 계산한다.
③ X — 350,000원은 자산과 부채에 장부금액을 적용하면서 연구개발프로젝트 50,000원만 추가한 경우의 값이다. 올바르게는 기존 자산과 부채도 취득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영업권을 250,000원으로 계산한다.
④ X — 400,000원은 장부상 순자산 300,000원을 차감하고 연구개발프로젝트도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공정가치 기준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450,000원을 차감하여 영업권을 250,000원으로 계산한다.
⑤ X — 450,000원은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이지 영업권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이전대가 700,000원에서 450,000원을 차감한 250,000원이 영업권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표의 장부금액을 사용하는 것과 별도로 식별된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영업권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취득일에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식별가능한 연구개발프로젝트 50,000원도 별도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취득일 공정가치 기준으로 식별가능한 자산에 별도 인식 항목을 더하고 부채를 차감한다. 그다음 이전대가에서 계산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차감하여 영업권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영업권 = 이전대가 - 취득일 공정가치 기준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이다. 피취득자의 장부에 없더라도 식별가능한 자산은 영업권과 분리한다.

NoteBase

문 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x1년 4월 1일 시세차익을 위하여 건물을 ₩2,000,000에 취득하였다. 그러나 (주)세무는 20x2년 4월 1일 동 건물을 자가사용으로 용도를 전환하고 동 일자에 영업지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x2년 4월 1일 현재 동 건물의 잔존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200,00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월할 상각)한다. 동 건물의 일자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동 건물관련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세무는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1. 12. 31.	20×2. 4. 1.	20×2. 12. 31.
₩2,400,000	₩2,600,000	₩2,200,000

① ₩70,000 감소

② ₩160,000 감소

③ ₩200,000 감소

④ ₩40,000 증가

⑤ ₩240,000 증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측정하다가 자가사용 유형자산으로 전환할 때, 전환일까지의 공정가치 변동과 전환일 이후의 감가상각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20×1년 말 공정가치 2,400,000원, 20×2년 4월 1일 공정가치 2,600,000원, 전환일 현재 잔존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20×2년의 공정가치평가이익과 전환 후 9개월분 감가상각비를 합한 당기순이익 영향이다.
주의할 조건: 전환일의 공정가치 2,600,000원이 유형자산의 간주원가가 되며, 전환 후에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므로 20×2년 말 공정가치 2,200,000원으로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공정가치평가이익은 전환일 공정가치-직전 장부금액이다.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간주원가-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사용기간 비율이다.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 투자부동산의 변동손익은 전환일까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자가사용 전환일부터는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하므로 두 금액을 함께 계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전환일까지의 공정가치평가이익은 2,600,000 − 2,400,000 = 200,000원이므로 당기순이익이 200,000원 증가한다.
2. 전환일 공정가치 2,600,000원이 유형자산의 간주원가가 된다.
3. 연간 감가상각비는 (2,600,000 − 200,000) ÷ 5 = 480,000원이다.
4.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분 감가상각비는 480,000 × 9 ÷ 12 = 360,000원이다.
5.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효과는 200,000 − 360,000 = −160,000원이므로 160,000원 감소이다.

선지 판단

① X — '70,000원 감소'는 전환일 공정가치가 아니라 최초 취득원가 2,000,000원을 감가상각 기초로 삼아 9개월분 감가상각비를 270,000원으로 잘못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올바르게는 전환일 공정가치 2,600,000원을 간주원가로 사용하므로 160,000원 감소이다.
② O — 공정가치평가이익 200,000원에서 9개월분 감가상각비 360,00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160,000원 감소한다.
③ X — '200,000원 감소'는 자가사용 전환 뒤에도 20×2년 말 공정가치 2,200,000원으로 계속 평가하는 것처럼 처리한 결과이다. 올바르게는 전환 후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당기순이익은 160,000원 감소한다.
④ X — '40,000원 증가'는 전환 후 감가상각비를 4개월분인 160,000원만 반영하여 200,000원에서 차감할 때 나오는 값이다. 올바르게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분 감가상각비 360,000원을 반영하므로 160,000원 감소이다.
⑤ X — '240,000원 증가'는 20×1년에 이미 발생한 취득원가 대비 공정가치 상승분까지 20×2년 손익에 다시 포함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20×2년에는 직전 장부금액 2,400,000원부터 전환일 공정가치 2,600,000원까지의 200,000원만 평가이익으로 반영하므로 160,000원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감가상각의 기초금액과 측정모형의 적용 시점을 혼동하는 데 있다. 최초 취득원가가 아니라 전환일 공정가치가 유형자산의 간주원가이고, 20×2년 말 공정가치는 전환 후 원가모형의 손익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20×1년에 인식한 공정가치 변동을 20×2년 손익에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전환일까지의 공정가치 변동손익을 계산하고, 전환일 공정가치를 유형자산의 간주원가로 정한 뒤, 전환일부터 결산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손익과 감가상각비를 합하여 당기순이익의 순증감액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의 자가사용 전환은 '전환일까지 공정가치손익, 전환일 공정가치가 간주원가, 전환 후 감가상각'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3. 측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②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가치이다.

③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④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⑤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역사적 원가·공정가치·사용가치·이행가치·현행원가가 거래원가를 반영하는 시점과 방식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역사적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발생시킨 시점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측정기준이다. 자산은 지급한 대가에 거래원가를 더하고, 부채는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뺀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정한 정상거래의 유출가격이다.
사용가치는 자산의 사용과 최종 처분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고, 이행가치는 부채를 이행하며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가치이다. 둘 다 기업 고유의 가정을 반영한다.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동등한 부채를 부담할 때의 원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자산의 역사적 원가는 취득·창출을 위해 지급한 대가와 그때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므로 옳다.
② O — 부채의 역사적 원가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그때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옳다.
③ O —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을 가격 또는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할 가격이므로 옳다.
④ X — 틀린 부분은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포함한다'이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취득·인수 시의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사용가치에는 자산의 최종 처분 때 예상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가 반영되고, 이행가치에는 부채를 이행할 때 예상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가 반영된다고 해야 한다.
⑤ O —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을 취득한다면 지급할 대가에 그날 발생할 거래원가를 더한 금액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④는 '거래원가를 반영한다'는 점만 보면 맞아 보이지만, 거래원가의 시점을 취득·인수 시점으로 바꾼 것이 함정이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에서 반영되는 것은 각각 최종 처분과 부채 이행에 예상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측정기준이 원가인지 가치인지 구분한다. 역사적 원가와 현행원가는 각각 최초 시점과 측정일의 유입 원가이므로 해당 시점의 거래원가를 반영한다.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관점의 유출가격이고, 사용가치·이행가치는 기업 고유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측정하므로 취득·인수 시 거래원가를 넣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원가 측정은 들어올 때의 거래원가, 사용가치·이행가치는 나가거나 이행할 때의 예상 거래원가를 반영한다.

NoteBase

문 14.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기업의 경제적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②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그 기업의 경제적자원에서 해당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은 그 기업의 재무성과 그리고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과 같은 그 밖의 사건이나 거래에서 발생한다.

④ 보고기업의 과거 재무성과와 그 경영진이 수탁책임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경제적자원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⑤ 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투자자와 채권자에게서 직접 추가 자원을 획득한 것이 아닌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이 반영된 정보는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재무상태 정보와 재무성과 정보의 역할, 그리고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 변동의 발생 원인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무상태 정보는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과 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을 보여 주는 정보이다. 이 정보는 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 미래 현금흐름 전망 및 경영진의 수탁책임 이행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은 재무성과에서 생기는 변동과 채무상품·지분상품 발행 등 재무성과 이외의 사건이나 거래에서 생기는 변동으로 나뉜다. 두 변동을 구분해야 미래 순현금유입 전망과 수탁책임 이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관한 정보는 경영진이 기업의 경제적자원을 얼마나 책임 있게 관리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O. 재무성과 정보는 보고기업이 보유한 경제적자원을 이용하여 창출한 수익을 이해하게 하므로 경제적자원 운용의 성과를 보여 준다.
③ X. 틀린 부분은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은 … 재무성과 그리고 … 그 밖의 사건이나 거래에서 발생한다'는 표현이다. 재무성과와 채무상품·지분상품의 발행 같은 사건이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은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 자체가 아니라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이다. 올바르게는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은 그 기업의 재무성과와 채무상품·지분상품의 발행 같은 그 밖의 사건이나 거래에서 발생한다'이다.
④ O. 과거 재무성과와 경영진의 수탁책임 이행에 관한 정보는 경제적자원에서 발생할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⑤ O. 투자자와 채권자로부터 직접 추가 자원을 조달하여 생긴 변동을 제외하고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으로 나타낸 재무성과 정보는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기준서의 문장에서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중 '변동'을 빠뜨려 원인과 결과를 바꾸었다.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은 자원·청구권 자체의 발생 원인을 일반화한 것이 아니라 자원·청구권을 변화시키는 거래의 예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은 한 시점의 재무상태이고,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은 재무성과 또는 자금조달 같은 그 밖의 사건·거래의 결과라는 구분을 적용한다. 선지에서 '변동'이 빠져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자원·청구권은 재무상태, 그 변동의 원인은 재무성과와 그 밖의 사건·거래이다.

NoteBase

문 15. (주)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세무의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1년도에 인식할 퇴직급여와 기타포괄손익은?

◯ 20x1년 초 사외적립자산 잔액은 ₩560,000이며, 확정급여채무 잔액은 ₩600,000이다.
◯ 20x1년도의 당기근무원가는 ₩450,000이다.
◯ 20x1년 말에 사외적립자산 ₩150,000이 퇴직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 20x1년 말에 현금 ₩400,000을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x1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920,000이며, 할인율을 제외한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을 반영한 20x1년 말 확정급여채무는 ₩1,050,000이다.
◯ 확정급여채무 계산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5%이다.

① 퇴직급여: ₩456,000 / 기타포괄손익: 손실 ₩34,000
② 퇴직급여: ₩456,000 / 기타포괄손익: 이익 ₩26,000
③ 퇴직급여: ₩540,000 / 기타포괄손익: 손실 ₩34,000
④ 퇴직급여: ₩540,000 / 기타포괄손익: 이익 ₩26,000
⑤ 퇴직급여: ₩540,000 / 기타포괄손익: 손실 ₩6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확정급여제도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퇴직급여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 확정급여채무는 ₩600,000, 기초 사외적립자산은 ₩560,000, 당기근무원가는 ₩450,000, 할인율은 15%이다. 퇴직종업원에게 지급한 ₩150,000은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함께 감소시키고, 출연액 ₩400,000은 사외적립자산만 증가시킨다. 퇴직급여는 당기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로 계산하고, 기타포괄손익은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제외 운용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당기근무원가를 C, 기초 확정급여채무를 D_0, 기초 사외적립자산을 A_0, 할인율을 r라 하면 퇴직급여는 $C + (D_0 - A_0)r$이다.
예상 기말 확정급여채무는 기초채무+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급여지급액이다.
예상 기말 사외적립자산은 기초자산+이자수익+출연액-급여지급액이다.
실제 기말 금액과 예상 기말 금액의 차이로 재측정요소를 구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는 당기손익에,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제외 수익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확정급여채무의 이자원가는 ₩600,000 × 15% = ₩90,000이고,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은 ₩560,000 × 15% = ₩84,000이다. 따라서 순이자는 ₩6,000이고, 퇴직급여는 ₩450,000 + ₩6,000 = ₩456,000이다.
2. 재측정 전 예상 기말 확정급여채무는 ₩600,000 + ₩450,000 + ₩90,000 - ₩150,000 = ₩990,000이다. 실제 기말 채무가 ₩1,050,000이므로 확정급여채무에서 보험수리적손실 ₩60,000이 발생한다.
3. 이자수익을 반영한 예상 기말 사외적립자산은 ₩560,000 + ₩84,000 + ₩400,000 - ₩150,000 = ₩894,000이다. 실제 공정가치가 ₩920,000이므로 사외적립자산에서 이자수익 제외 이익 ₩26,000이 발생한다.
4. 기타포괄손익은 손실 ₩60,000 - 이익 ₩26,000 = 손실 ₩34,000이다.

선지 판단

① O. 퇴직급여 ₩456,000과 기타포괄손실 ₩34,000이 모두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② X. 퇴직급여 ₩456,000은 맞지만, '기타포괄손익: 이익 ₩26,000'은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손실 ₩60,000을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기타포괄손실 ₩34,000이다.
③ X. '퇴직급여: ₩540,000'은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84,000을 차감하지 않고 당기근무원가와 채무의 이자원가만 합산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퇴직급여 ₩456,000이고, 기타포괄손실 ₩34,000이다.
④ X. '퇴직급여: ₩540,000'은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을 누락했고, '기타포괄손익: 이익 ₩26,000'은 보험수리적손실을 누락했다. 올바르게는 퇴직급여 ₩456,000, 기타포괄손실 ₩34,000이다.
⑤ X. 퇴직급여 ₩540,000은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을 누락한 값이고, 기타포괄손실 ₩60,000은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제외 이익 ₩26,000을 상계하지 않은 값이다. 올바르게는 퇴직급여 ₩456,000, 기타포괄손실 ₩34,000이다.

오답 포인트

당기손익에서는 확정급여채무의 이자원가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을 차감한 순이자를 사용한다. 기타포괄손익에서도 채무의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제외 운용손익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②와 ⑤는 재측정요소의 한쪽만 본 선택지이고, ③과 ④의 ₩540,000은 자산의 이자수익을 빠뜨린 값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의 순이자를 구한다. 다음으로 채무와 사외적립자산 각각의 예상 기말 잔액을 계산한 뒤 실제 기말 잔액과 비교하고, 두 재측정요소를 순액으로 합산하여 기타포괄손익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퇴직급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 기타포괄손익은 채무 재측정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순이자 제외 수익이다.

NoteBase

문 16.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주)대한에게 ₩500,000(만기 4년, 표시이자율 연 5%, 매년 말 지급)을 차입하였으며, 유효이자율은 연 5%이다. 20x2년 12월 31일 (주)세무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주)대한과 차입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20x2년 12월 31일 (주)세무가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야 할 장기차입금은?

◯ 만기일 : 20x7년 12월 31일
◯ 표시이자율 : 연 2%, 매년 말 지급
◯ 유효이자율 : 연 8%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8%	5%	8%
2년	0.9070	0.8573	1.8594	1.7833
5년	0.7835	0.6806	4.3295	3.9927

① ₩380,227
② ₩435,045
③ ₩446,483
④ ₩472,094
⑤ ₩50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차입금의 조건 변경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해당하는지 10% 테스트로 판단한 뒤,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변경 직전 기존 차입금의 장부금액은 500,000원이다. 기존 표시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모두 연 5%이므로 장부금액이 액면금액과 같다.
변경 후에는 매년 말 이자 10,000원(500,000원 × 2%)을 5회 지급하고, 20x7년 말 원금 500,000원을 상환한다.
10% 테스트에는 기존 유효이자율 5%를 사용하고, 새로운 부채의 최초 측정에는 변경 후 유효이자율 8%를 사용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10% 테스트 금액은 변경된 현금흐름을 기존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PV_{5\%} = 10{,}000 \times 4.3295 + 500{,}000 \times 0.7835$
이 금액과 기존 장부금액의 차이가 기존 장부금액의 10% 이상이면 기존 부채를 제거한다. 제거 후 새 금융부채는 변경된 현금흐름을 변경 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PV_{8\%} = 10{,}000 \times 3.9927 + 500{,}000 \times 0.6806$

계산 과정

1. 10% 테스트 금액은 10,000원 × 4.3295 + 500,000원 × 0.7835 = 435,045원이다.
2. 기존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500,000원 - 435,045원 = 64,955원이고, 차이 비율은 64,955원 ÷ 500,000원 = 12.991%이다. 이는 10% 이상이므로 기존 차입금은 제거된다.
3. 새로운 차입금의 공정가치는 10,000원 × 3.9927 + 500,000원 × 0.6806 = 39,927원 + 340,300원 = 380,227원이다. 따라서 20x2년 12월 31일 장기차입금은 380,227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8%로 할인한 새로운 차입금의 공정가치가 380,227원이므로 옳다.
② X — 435,045원은 변경된 현금흐름을 기존 유효이자율 5%로 할인한 10% 테스트 금액이다. 새 차입금으로 인식할 금액은 8%로 할인한 380,227원이다.
③ X — 446,483원은 변경 후 현금흐름을 8%로 할인한 값이 아니다. 이자 현금흐름과 원금 현금흐름을 모두 8%로 할인하면 380,227원이다.
④ X — 472,094원은 새 차입금의 공정가치가 아니다. 기존 부채를 제거한 뒤 인식할 올바른 금액은 380,227원이다.
⑤ X — 500,000원은 조건 변경 직전 기존 차입금의 장부금액이다. 10% 테스트 결과 기존 부채를 제거하므로 변경 후에도 500,000원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 부채의 공정가치 380,227원을 인식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435,045원은 최종 장기차입금이 아니라 부채 제거 여부를 판정하는 중간값이다. 10% 테스트의 할인율 5%와 새 부채 최초 측정의 할인율 8%를 혼동하면 ②를 고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변경된 현금흐름을 기존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10% 테스트를 한다. 차이가 10% 이상이면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변경 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공정가치를 새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으로 정한다.

암기 포인트

10% 테스트는 기존 이자율, 새 부채 측정은 새 이자율이다.

NoteBase

문 17.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10개씩 부여하였다. 주가차액보상권은 3년간 종업원이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부여되었으며, 주가차액보상권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20x3년도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 20x1년 실제퇴사자는 10명이며, 미래 예상퇴사자는 15명이다.
◯ 20x2년 실제퇴사자는 12명이며, 미래 예상퇴사자는 8명이다.
◯ 20x3년 실제퇴사자는 5명이며, 주가차액보상권 최종 가득자는 73명이다.
◯ 20x3년 말 주가차액보상권을 행사한 종업원 수는 28명이다.
◯ 매 연도말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현금지급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연도	현금지급액	공정가치
20×1	-	₩1,000
20×2	-	1,260
20×3	₩1,200	1,400

① ₩56,000
② ₩378,000
③ ₩434,000
④ ₩490,000
⑤ ₩498,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매 보고기간 말 부채를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며, 당기비용은 기말 부채와 당기 현금지급액의 합계에서 기초 부채를 차감하여 구한다.

조건 정리

20×2년 말 예상 가득 인원은 100명에서 20×1년 실제퇴사자 10명, 20×2년 실제퇴사자 12명, 미래 예상퇴사자 8명을 뺀 70명이다.
20×3년 최종 가득자는 73명이고, 그중 28명이 권리를 행사했으므로 미행사자는 45명이다.
종업원 1명당 권리는 10개이며, 20×3년 현금지급액은 권리당 1,200원, 20×3년 말 공정가치는 권리당 1,400원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당기비용=기말 부채+당기 현금지급액-기초 부채
현금결제형 보상은 지급 전까지 부채로 처리하고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20×2년 말 부채는 70명 × 10개 × 1,260원 × 2/3 = 588,000원이다.
2. 20×3년 말 미행사분 부채는 (73명 - 28명) × 10개 × 1,400원 = 630,000원이다.
3. 20×3년 현금지급액은 28명 × 10개 × 1,200원 = 336,000원이다.
4. 20×3년 당기비용은 630,000원 + 336,000원 - 588,000원 = 378,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56,000원은 당기비용이 아니다. 행사분의 권리당 공정가치 1,400원과 현금지급액 1,200원의 차이만 계산하면 28명 × 10개 × 200원 = 56,000원이 되지만, 기말 미행사분 부채와 기초 부채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 올바른 금액은 378,000원이다.
② O — 기말 미행사분 부채 630,000원에 당기 현금지급액 336,000원을 더하고 기초 부채 588,000원을 빼면 378,000원이다.
③ X — 434,000원은 행사한 28명의 권리까지 모두 20×3년 말 공정가치 1,400원으로 평가하여 73명 × 10개 × 1,400원 - 588,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행사분은 실제 현금지급액 336,000원으로 반영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378,000원이다.
④ X — 490,000원은 기말 부채, 당기 지급액, 기초 부채의 증감관계를 잘못 적용한 금액이다. 올바른 계산은 630,000원 + 336,000원 - 588,000원이며, 당기비용은 378,000원이다.
⑤ X — 498,000원은 3년 가득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전기까지 인식한 부채를 무시하거나 행사분과 미행사분을 잘못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 부채 588,000원을 차감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378,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행사분 28명까지 기말 공정가치 1,4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행사분은 실제 지급액 1,200원을 적용하고, 기말 공정가치 1,400원은 아직 행사하지 않은 45명의 권리에만 적용한다. 또한 당기비용을 구할 때 전기 말까지 누적된 부채 588,000원을 반드시 차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먼저 기초 부채를 구한 뒤, 당기 말 미행사분의 공정가치 부채와 당기 행사분의 실제 현금지급액을 각각 계산한다. 그다음 '기말 부채 + 지급액 - 기초 부채'의 순서로 당기비용을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현금결제형 당기비용 = 기말 부채 + 당기 지급액 - 기초 부채이다. 행사분은 지급액, 미행사분은 기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NoteBase

문 19. 현금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

②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며,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③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 제외한다.

④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한다. 각 현금흐름은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⑤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현금흐름을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비현금거래의 표시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된 수익 창출 활동과 투자활동·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활동이다. 투자활동은 장기자산과 현금성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투자의 취득·처분이고, 재무활동은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규모·구성에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이다. 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은 재판매를 위해 취득한 재고자산과 유사하므로 그 취득·판매 현금흐름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주로 기업의 주된 수익 창출 활동에서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 결정에 반영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생긴다. 다만 유형자산 처분처럼 손익에는 반영되더라도 관련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인 예외가 있다.

② O.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고, 특정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명백하게 관련되지 않으면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③ O.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재무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거래의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에 공시한다.

④ O.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하며, 선택한 활동 분류를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이다.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은 재판매 목적의 재고자산과 유사하므로 그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유가증권이라는 명칭만 보고 모든 취득·판매를 투자활동으로 판단하기 쉽다. ⑤에서는 보유 목적이 '단기매매목적'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이 경우 투자활동이 아니라 영업활동이다. 또한 ③의 '현금흐름표에서 제외'는 공시 자체를 생략한다는 뜻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에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는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산의 명칭보다 거래 목적을 먼저 확인한다. 단기매매목적이면 영업활동, 장기자산이나 일반 투자자산의 취득·처분이면 투자활동으로 판단한다. 비현금 투자·재무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는 제외하되 별도 공시 대상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단기매매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처럼 영업활동, 비현금 투자·재무거래는 현금흐름표 제외·별도 공시이다.

NoteBase

문 20.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표시이자율 연 5%,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인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사채발행비로 ₩46,998을 지출하였다. 사채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은 연 8%이며, 20x1년 말 이자비용으로 ₩87,566을 인식하였다. 사채의 액면금액 중 ₩600,000을 20x3년 4월 1일에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570,000에 조기상환 한 경우 사채상환손익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8%	5%	8%
3년	0.8638	0.7938	2.7233	2.5771

① 손실 ₩7,462

② 손실 ₩9,545

③ 이익 ₩7,462

④ 이익 ₩9,545

⑤ 이익 ₩17,045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사채발행비를 최초 장부금액에서 차감한 뒤 유효이자율법으로 조기상환일의 장부금액을 구하고, 부분상환 비율과 경과이자를 반영하여 사채상환손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액면금액은 ₩1,000,000, 표시이자율은 연 5%, 만기는 3년,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은 연 8%이다. 발행비용 ₩46,998은 최초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 20x1년 이자비용 ₩87,566을 이용하면 발행비용까지 반영한 유효이자율은 10%임을 알 수 있다. 20x3년 4월 1일에 액면금액의 60%를 경과이자 포함 ₩570,000에 상환한다.

사용할 공식

발행가액은 $F \times PVF + iF \times PVAF$로 계산한다. 기말 장부금액은 $B_t = B_{t-1} + B_{t-1}r - C$이고, 상환손익은 제거되는 장부금액에서 경과이자를 제외한 상환대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발행비용은 사채의 유효이자율을 높이며, 일부만 상환하므로 조기상환일의 전체 장부금액에 60%를 적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발행가액은 ₩1,000,000×0.7938+₩50,000×2.5771=₩922,655이다. 발행비용을 차감한 최초 장부금액은 ₩922,655-₩46,998=₩875,657이다.
2. 20x1년 말 장부금액은 ₩875,657+₩87,566-₩50,000=₩913,223이다. 주어진 이자비용은 최초 장부금액의 약 10%이므로 유효이자율은 10%이다.
3. 20x2년 이자비용은 ₩913,223×10%=₩91,322이고, 20x2년 말 장부금액은 ₩913,223+₩91,322-₩50,000=₩954,545이다.
4. 20x3년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의 이자비용은 ₩954,545×10%×3/12=₩23,864이고, 표시이자 경과분은 ₩1,000,000×5%×3/12=₩12,500이다. 따라서 조기상환일의 전체 사채 장부금액은 ₩954,545+₩23,864-₩12,500=₩965,909이다.
5. 상환 부분의 장부금액은 ₩965,909×60%=₩579,545이다. 지급액에 포함된 경과이자는 ₩12,500×60%=₩7,500이므로 사채 원금의 상환대가는 ₩570,000-₩7,500=₩562,500이다.
6. 사채상환이익은 ₩579,545-₩562,500=₩17,045이다.

선지 판단

① X — 상환 부분의 장부금액이 경과이자를 제외한 상환대가보다 ₩17,045 크므로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다. '손실 ₩7,462'는 '이익 ₩17,045'로 고쳐야 한다.
② X — 손익의 방향과 금액이 모두 틀렸다. 계산 결과는 손실 ₩9,545가 아니라 이익 ₩17,045이다.
③ X — 이익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금액이 틀렸다. '이익 ₩7,462'는 '이익 ₩17,045'로 고쳐야 한다.
④ X — ₩9,545는 상환 부분의 장부금액 ₩579,545를 경과이자가 포함된 지급액 ₩570,000과 직접 비교할 때 나오는 값이다. 지급액에서 경과이자 ₩7,500을 먼저 제외해야 하므로 '이익 ₩9,545'는 '이익 ₩17,045'로 고쳐야 한다.
⑤ O — 제거되는 사채 장부금액 ₩579,545에서 경과이자를 제외한 상환대가 ₩562,500을 차감하면 사채상환이익은 ₩17,045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경과이자가 포함된 ₩570,000을 사채 장부금액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이다. 상환대가와 장부금액의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해 지급액 중 경과이자 ₩7,500을 분리해야 한다. 또한 발행비용은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장부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문제에서 제시한 20x1년 이자비용을 통해 유효이자율 10%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채 조기상환 문제는 발행비용 반영 후 최초 장부금액 계산 → 유효이자율법으로 상환일 장부금액 계산 → 상환비율 적용 → 경과이자를 상환대가에서 분리 → 장부금액과 순수 상환대가 비교의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상환손익은 같은 범위끼리 비교한다. 사채 장부금액에는 사채 원금의 상환대가를 대응시키고, 지급액에 포함된 경과이자는 먼저 분리한다.

NoteBase

문 21. (주)세무는 고객이 구매한 금 액 ₩2당 포인트 1점을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포인트는 (주)세무의 제품을 구매할 때 ₩1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 (주)세무가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약속은 수행의무에 해당한다.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대가는 고정금액이고, 고객이 구매한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1,000,000이다. 고객은 20x1년에 제품 ₩1,000,000을 구매하였으며, 미래에 제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500,000포인트를 얻었다. (주)세무는 20x1년도에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 중 50%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여 포인트 당 개별 판매가격을 ₩0.5으로 추정하였다. 20x1년과 20x2년의 포인트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20x2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보고해야 할 계약부채는?

구분	20×1년	20×2년
교환된 포인트	180,000	252,000
전체적으로 교환이 예상되는 포인트	450,000	480,000

① ₩10,000

② ₩20,000

③ ₩30,000

④ ₩40,000

⑤ ₩5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고객충성제도에서 포인트에 배분한 거래가격을 계약부채로 인식한 뒤, 누적 교환 비율만큼 수익으로 인식하고 남은 금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 1,000,000원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 500,000포인트 × 포인트당 0.5원 = 250,000원
20×1년과 20×2년의 누적 교환 포인트: 180,000포인트 + 252,000포인트 = 432,000포인트
20×2년 말 전체 예상 교환 포인트: 480,000포인트
구해야 할 값: 포인트에 최초 배분한 거래가격 중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계약부채

NoteBase

사용할 공식

포인트 배분액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1,000,000×250,0001,000,000+250,000=200,000원
누적 포인트 수익은 포인트 배분액에 누적 교환 포인트를 전체 예상 교환 포인트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이 비율을 사용하는 이유는 포인트 수행의무가 실제 교환에 따라 이행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은 500,000포인트 × 0.5원 = 250,000원이다.
2. 최초 거래가격 1,000,000원 중 포인트 수행의무에 배분되는 금액은 200,000원이다.
3. 20×2년 말 누적 교환 비율은 $\frac{180,000 + 252,000}{480,000} = 90\%$이다.
4. 20×2년 말까지 인식할 누적 포인트 수익은 200,000원 × 90% = 180,000원이다.
5. 기말 계약부채는 200,000원 - 180,000원 = 2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10,000원은 계산된 기말 계약부채 20,000원과 다르다. '10,000원'은 '2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포인트 배분액 200,000원에서 누적 포인트 수익 180,000원을 차감하면 계약부채는 20,000원이다.
③ X — 30,000원은 계산된 기말 계약부채 20,000원과 다르다. '30,000원'은 '2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40,000원은 계산된 기말 계약부채 20,000원과 다르다. '40,000원'은 '2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50,000원은 계산된 기말 계약부채 20,000원과 다르다. '50,000원'은 '2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20×2년 말 누적 교환 포인트를 252,000포인트만으로 보거나,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 250,000원을 곧바로 계약부채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연도별 교환량은 누적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거래가격은 제품과 포인트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객충성제도 문제는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 계산 →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른 거래가격 배분 → 누적 교환률에 따른 수익 인식 → 미이행 잔액 계산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포인트 계약부채는 '포인트 배분액 - 누적 교환률만큼 인식한 수익'이다.

NoteBase

문 22. (주)세무는 20x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공사기간 3년, 계약금액 ₩600,000)을 체결하였다. (주)세무의 건설용역에 대한 통제는 기간에 걸쳐 이전된다. (주)세무는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측정한다. 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x2년도 공사이익은?

◯ 20x1년 말 공사완료시까지의 추가소요원가를 추정할 수 없어 합리적으로 진행률을 측정할 수 없었으나, 20x1년 말 현재 이미 발생한 원가 ₩120,000은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20x2년 말 공사완료시까지 추가소요원가를 ₩200,000으로 추정하였다.
◯ 연도별 당기발생 공사원가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1년	20×2년	20×3년
당기발생 공사원가	₩120,000	₩180,000	₩200,000

① ₩0
② ₩40,000
③ ₩60,000
④ ₩120,000
⑤ ₩18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지 못한 전기와 측정할 수 있게 된 당기의 수익·이익 인식을 구분하여 20x2년도 공사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계약금액은 ₩600,000이다. 20x1년에는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발생원가 ₩120,000은 회수 가능하므로 수익을 원가와 같은 ₩120,000만 인식하고 이익은 ₩0으로 인식한다. 20x2년 말 누적발생원가는 ₩300,000이고, 추가소요원가는 ₩200,000이다.

사용할 공식

진행률=누적발생원가누적발생원가+추가소요원가누적수익=계약금액×진행률당기이익=당기수익-당기발생원가
20x2년 말에는 총예정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적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x2년 말 누적발생원가는 ₩120,000+₩180,000=₩300,000이고, 총예정원가는 ₩300,000+₩200,000=₩500,000이다.
2. 진행률은 $300,000/500,000 = 60\%$이다.
3. 20x2년 말 누적수익은 ₩600,000×60%=₩360,000이다.
4. 20x2년 당기수익은 누적수익 ₩360,000에서 20x1년 수익 ₩120,000을 뺀 ₩240,000이다.
5. 20x2년 공사이익은 당기수익 ₩240,000에서 당기발생원가 ₩180,000을 뺀 ₩60,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0은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지 못했던 20x1년의 이익이다. 20x2년에는 추정이 가능해졌으므로 ₩0이 아니라 ₩60,000이다.
② X — 20x2년 당기수익 ₩240,000에서 당기발생원가 ₩180,000을 빼면 ₩40,000이 아니라 ₩60,000이다.
③ O — 계산한 20x2년도 공사이익 ₩60,000과 일치한다.
④ X — 20x2년도 공사이익은 ₩120,000이 아니라 ₩60,000이다. ₩120,000은 20x1년에 원가 회수 범위에서 인식한 수익이자 그해 발생원가이다.
⑤ X — ₩180,000은 20x2년 당기발생 공사원가이지 공사이익이 아니다. 공사이익은 ₩60,000이다.

오답 포인트

20x1년에 이익을 ₩0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20x2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20x2년 말에는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누적수익을 구한 뒤 전기에 이미 인식한 수익을 차감하여 당기수익을 산출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계약은 먼저 기말 누적진행률과 누적수익을 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을 차감해 당기수익을 구한 다음 당기발생원가를 빼서 당기이익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누적수익에서 전기수익을 빼면 당기수익이고, 당기수익에서 당기원가를 빼면 당기이익이다.

NoteBase

문 23. (주)세무의 20x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고, 유통우선주식수는 3,000주(1주당 액면금액 ₩100, 연 배당률 10%)로 우선주 2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이 가능하다. (주)세무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335,600이며,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x1년도 기본주당이익은? (단, 기중에 전환된 전환우선주에 대해서 우선주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가중평균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 4월 1일 전년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액면금액 ₩20,000, 전환가격 ₩50) 중 40%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20x1년 말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1,200이며, 법인세율은 20%이다.
◯ 7월 1일 자기주식 250주를 취득하였다.
◯ 10월 1일 우선주 1,000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① ₩110
② ₩120
③ ₩130
④ ₩140
⑤ ₩15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기본주당이익의 분자에서는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구하고, 분모에서는 실제로 발행·전환·취득된 보통주를 유통 기간에 따라 월할 가중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당기순이익은 1,335,600원이다. 전환되지 않은 우선주는 2,000주이고, 1주당 연간 배당금은 100원 × 10% = 10원이다. 전환사채의 40%는 4월 1일 보통주 160주로 전환되었다. 7월 1일 취득한 자기주식 250주는 그날부터 유통주식수에서 제외한다. 10월 1일 전환된 우선주 1,000주는 전환비율 2:1에 따라 보통주 500주가 된다. 기중 전환된 우선주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유의한다.

사용할 공식

기본주당이익=당기순이익-우선주배당금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기본주당이익은 해당 기간에 실제로 유통된 보통주 1주에 귀속되는 이익을 나타내므로, 우선주 귀속 배당을 분자에서 빼고 보통주의 유통 기간을 분모에 반영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우선주배당금은 2,000주 × 100원 × 10% = 20,000원이다. 따라서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은 1,335,600원 - 20,000원 = 1,315,600원이다.
2.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된 보통주는 20,000원 × 40% ÷ 50원 = 160주이고, 4월 1일부터 9개월간 유통되므로 가중주식수는 $160 \times \frac{9}{12} = 120$주이다. 기본주당이익에서는 실제 전환을 반영하므로 전환사채 이자비용과 법인세율을 분자에 가산하지 않는다.
3. 자기주식 취득의 가중효과는 $250 \times \frac{6}{12} = 125$주 감소이다.
4. 우선주 전환으로 발행된 보통주는 1,000주 ÷ 2 = 500주이고, 10월 1일부터 3개월간 유통되므로 가중주식수는 $500 \times \frac{3}{12} = 125$주 증가이다.
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 + 120주 - 125주 + 125주 = 10,120주이다.
6. 기본주당이익은 1,315,600원10,120주=13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110원은 계산 결과 130원과 다르다. '110원'은 '13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120원은 계산 결과 130원과 다르다. '120원'은 '13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1,315,600원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120주로 나누면 130원이 된다.
④ X. 140원은 계산 결과 130원과 다르다. '140원'은 '13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150원은 계산 결과 130원과 다르다. '150원'은 '130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전환사채 이자비용과 법인세율은 희석주당이익의 가정전환 계산에서 사용하는 정보이다. 이 문항의 기본주당이익에서는 4월 1일 실제 전환으로 늘어난 보통주만 월할 반영한다. 또한 10월 1일 전환된 우선주 1,000주는 배당금 계산에서는 제외하지만, 전환으로 생긴 보통주 500주는 3개월분을 분모에 포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본주당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배당 차감 → 각 보통주 변동을 발생일부터 월할 가중 → 분자÷분모'의 순서로 계산한다. 실제 전환과 희석주당이익의 가정전환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기본주당이익은 실제 유통 기준이다. 우선주배당은 분자에서 차감하고, 보통주 증감은 발생일부터 월할 계산한다.

NoteBase

문 24. (주)세무리스는 20x1년 1월 1일(리스개시일)에 (주)한국에게 건설장비를 5년 동안 제공하고 고정리스료로 매년 말 ₩2,000,000씩 수취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체결당시 (주)세무리스는 리스개설직접원가 ₩50,000을 지출하였으며, 건설장비의 공정가치는 ₩8,152,500이다. 리스개시일 당시 (주)세무리스의 내재이자율은 10%이다. 리스기간 종료시 (주)한국은 건설장비를 반환하는 조건이며, 예상 잔존가치 ₩1,000,000 중 ₩600,000을 보증한다. (주)세무리스는 20x3년 1월 1일 무보증잔존가치의 추정을 ₩200,000으로 변경하였다. (주)세무리스가 20x3년도에 인식해야할 이자수익은?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3년	0.7513	2.4868
5년	0.6209	3.7908

① ₩542,438

② ₩557,464

③ ₩572,490

④ ₩578,260

⑤ ₩582,642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무보증잔존가치의 추정이 변경된 뒤 남은 리스료와 수정된 잔존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금융리스 순투자액을 다시 구하고, 여기에 내재이자율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x3년 1월 1일 현재 남은 고정리스료는 매년 말 2,000,000원씩 3회이다.
보증잔존가치는 600,000원이고, 변경된 무보증잔존가치는 200,000원이므로 리스기간 말 잔존가치는 합계 800,000원이다.
할인율은 10%이며, 3년 정상연금 현재가치계수는 2.4868, 3년 현가계수는 0.7513이다.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최초 순투자액과 내재이자율에 이미 반영되므로 20x3년 계산에서 다시 더하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변경 후 순투자액=남은 리스료의 현재가치+수정된 잔존가치의 현재가치
20x3년 이자수익=20x3년 초 변경 후 순투자액× 10\%
무보증잔존가치의 감소는 리스기간 말 회수할 금액을 줄이므로, 수정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남은 고정리스료의 현재가치는 2,000,000원 × 2.4868 = 4,973,600원이다.
2. 수정된 잔존가치의 현재가치는 (600,000원 + 200,000원) × 0.7513 = 601,040원이다.
3. 20x3년 1월 1일의 변경 후 순투자액은 4,973,600원 + 601,040원 = 5,574,640원이다.
4. 20x3년도 이자수익은 5,574,640원 × 10% = 557,464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542,438원은 무보증잔존가치 200,000원을 제외하고 보증잔존가치 600,000원만 반영할 때 나오는 금액이다. '₩542,438'은 틀렸고, 올바른 이자수익은 557,464원이다.
② O — 변경 후 순투자액 5,574,640원에 10%를 적용하면 557,464원이므로 옳다.
③ X — 572,490원은 변경 전 예상 잔존가치 1,000,000원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의 금액이다. '₩572,490'은 틀렸고, 무보증잔존가치를 200,000원으로 수정하면 557,464원이다.
④ X — 578,260원은 수정된 잔존가치 800,000원을 반영한 순투자액 5,574,640원에 10%를 적용한 결과가 아니다. '₩578,260'은 틀렸고, 올바른 금액은 557,464원이다.
⑤ X — 582,642원도 변경 후 순투자액에 내재이자율 10%를 적용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582,642'은 틀렸고, 올바른 금액은 557,464원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무보증잔존가치가 40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감소했는데도 변경 전 전체 잔존가치 1,000,000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반대로 무보증잔존가치 전부를 제외해서도 안 된다. 변경 후에는 보증잔존가치 600,000원과 수정된 무보증잔존가치 200,000원을 합한 800,000원을 사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스제공자의 잔존가치 추정이 바뀌면 먼저 남은 리스료 횟수를 세고, 보증잔존가치와 수정된 무보증잔존가치를 합한 뒤 각각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그 합계인 기초 순투자액에 내재이자율을 적용하면 당기 이자수익이 된다.

암기 포인트

이자수익 = 변경 후 기초 순투자액 × 내재이자율이며, 잔존가치는 보증분과 수정된 무보증분을 모두 반영한다.

NoteBase

문 25. (주)세무는 결합공정을 통하여 연산품 A, B를 생산한다. 제품 B는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되고 있으나, 제품 A는 추가가공을 거친 후 판매되고 있으며, 결합원가는 순실현가치에 의해 배분되고 있다. 결합공정의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결합공정에 기초재공품은 없었으며, 직접재료 5, 000kg을 투입하여 4, 000kg을 제품으로 완성하고 1, 000kg은 기말재공품(전환원가 완성도 30%)으로 남아 있다. 당기 결합공정에 투입된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는 ₩250,000과 ₩129,000이다. (주)세무의 당기 생산 및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A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구 분	생산량	판매량	추가가공원가 총액	단위당 판매가격
제품 A	4,000단위	2,500단위	₩200,000	₩200
제품 B	1,000	800	-	200

① ₩98

② ₩110

③ ₩120

④ ₩130

⑤ ₩15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성품의 결합원가를 계산한 뒤 순실현가치 비율로 제품 A에 배분하고, A의 추가가공원가를 더하여 단위당 제조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5, 000kg이다. 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완성품 4, 000kg과 기말재공품 1, 000kg × 30%를 합한 4, 300kg이다. 제품 A의 생산량은 4,000단위, 추가가공원가는 200,000원,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원이다. 제품 B의 생산량은 1,000단위, 추가가공원가는 없고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원이다. 결합원가는 판매량이 아니라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 제품의 순실현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 당기 투입원가 ÷ 완성품환산량이다.
제품별 순실현가치 = 최종 판매가치 -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이다.
제품 A의 단위당 제조원가 = (A에 배분된 결합원가 + A의 추가가공원가) ÷ A의 생산량이다.
재공품의 재료와 전환원가 완성도가 다르고, 결합원가를 순실현가치로 배분한다는 조건이므로 이 공식들을 순서대로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재료원가의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250,000 \div 5,000 = 50$원이므로 완성품의 재료원가는 $4,000 \times 50 = 200,000$원이다.
2. 전환원가의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129,000 \div 4,300 = 30$원이므로 완성품의 전환원가는 $4,000 \times 30 = 120,000$원이다. 따라서 완성품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320,000원이다.
3. A의 순실현가치는 $4,000 \times 200 - 200,000 = 600,000$원이고, B의 순실현가치는 $1,000 \times 200 = 200,000$원이다. 따라서 순실현가치 비율은 $600,000 : 200,000 = 3 : 1$이다.
4. A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는 $320,000 \times 3/4 = 240,000$원이다.
5. A의 총제조원가는 $240,000 + 200,000 = 440,000$원이고, 단위당 제조원가는 $440,000 \div 4,000 = 11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98은 계산된 단위당 제조원가 ₩110과 일치하지 않는다. '₩98'은 '₩110'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제품 A의 총제조원가 440,000원을 생산량 4,000단위로 나누면 단위당 ₩110이다.
③ X — ₩120은 계산된 단위당 제조원가 ₩110보다 10원 크다. '₩120'은 '₩110'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130은 완성품 결합원가 320,000원을 전부 A에 부담시킨 뒤 A의 추가가공원가를 더할 때 나오는 값이다. B에도 결합원가를 배분해야 하므로 '₩130'은 '₩110'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150은 A의 단위당 판매가격 ₩200에서 단위당 추가가공원가 ₩50을 뺀 단위당 순실현가치이며 제조원가가 아니다. '₩150'은 '₩110'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기말재공품은 재료원가와 전환원가의 완성도가 다르므로 두 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또한 순실현가치는 결합원가의 배분 기준일 뿐 제품 A의 제조원가 자체가 아니다. 판매량으로 판매수익을 계산하거나 완성품 결합원가 전액을 A에 배부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으로 완성품 결합원가를 구한다. 다음으로 각 연산품의 생산량 기준 최종 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를 차감하여 순실현가치를 구하고, 그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제품의 추가가공원가를 더한 뒤 생산량으로 나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완성품 결합원가 계산 → 순실현가치 비율 배분 → 개별 추가가공원가 가산 → 생산량으로 나누기의 순서이다.

NoteBase

문 26. 다음 표준원가계산과 관련된 원가차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재고자산의 기말잔액과 원가차이계정은 0이 아니다.)

①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를 원재료 사용(투입)시점에 분리하는 경우,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는 원가차이조정시 원재료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를 원재료 구입시점에 분리하는 경우,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는 실제 구입량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투입량)을 기초로 계산한다.

③ 총원가비례배분법에 의해 원가차이조정을 하는 경우, 직접재료원가 구입가격차이는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계정에 영향을 미친다.

④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를 원재료 구입시점에 분리하는 경우, 원재료계정은 표준원가로 기록된다.

⑤ 원가요소별비례배분법에 의해 원가차이조정을 하는 경우, 직접재료원가 구입가격차이는 원재료계정 기말잔액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의 분리 시점과 원가차이 조정 방법에 따라 어느 계정이 조정 대상이 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격차이의 분리 시점: 구입시점에 분리하면 원재료를 표준가격으로 기록하고 구입가격차이를 별도 인식하지만, 사용시점에 분리하면 기말 원재료는 실제가격으로 남고 사용한 재료에 대해서만 가격차이를 인식한다.
총원가비례배분법: 원가차이를 기말 원재료·재공품·제품 및 매출원가의 총원가 비율에 따라 조정하는 간편한 방법이다.
원가요소별비례배분법: 각 원가차이를 그 원가요소가 들어 있는 관련 계정의 금액 비율에 따라 조정하는 방법이다. 구입시점에 분리한 직접재료 구입가격차이는 직접재료원가 관련 항목에 배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격차이를 사용시점에 분리하면 기말 원재료는 이미 실제가격으로 기록되어 있고, 인식된 가격차이는 실제로 사용한 재료에서 발생한 차이이다. 따라서 그 가격차이를 조정할 때 원재료계정에는 배분하지 않는다.
② O.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는 재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나타내므로 실제 구입량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과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사용량을 비교하여 계산한다. 가격차이의 분리 시점과 무관하게 실제 사용량이 기준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총원가비례배분법에 의해'이다. 총원가비례배분법에서는 구입가격차이를 기말 원재료·재공품·제품 및 매출원가의 총원가 비율에 따라 조정하므로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계정에 배분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원가요소별비례배분법에 의해 조정하는 경우, 직접재료원가 구입가격차이는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계정에 영향을 미친다'이다.
④ O. 가격차이를 구입시점에 분리하면 원재료 구입액 중 표준가격 부분은 원재료계정에 기록하고 실제가격과 표준가격의 차이는 구입가격차이계정에 별도로 기록한다. 따라서 원재료계정은 표준원가로 기록된다.
⑤ O. 원가요소별비례배분법에서 구입시점에 분리한 직접재료 구입가격차이는 직접재료원가와 관련된 계정에 배분된다. 기말 원재료도 그 배분 대상이므로 원재료계정 기말잔액에 영향을 미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총원가비례배분법과 원가요소별비례배분법의 조정 대상을 바꾸어 놓았다. 직접재료 구입가격차이가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가요소별비례배분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가격차이를 구입시점에 분리했는지 사용시점에 분리했는지를 확인한다. 구입시점 분리이면 원재료는 표준원가이고 구입가격차이가 기말 원재료에도 관련되며, 사용시점 분리이면 기말 원재료는 실제원가이고 가격차이는 사용한 재료에만 관련된다. 다음으로 총원가비례배분은 총원가 기준, 원가요소별비례배분은 해당 원가요소 기준이라는 점으로 배분 대상을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구입시점 분리=원재료 표준원가·기말 원재료도 가격차이 조정 대상, 사용시점 분리=원재료 실제원가·기말 원재료는 가격차이 조정 제외이다. 능률차이계정까지 연결되는 것은 원가요소별비례배분법이다.

NoteBase

문 27. (주)세무의 20x1년 매출액은 ₩3,000,000이고 세후이익은 ₩360,000이며, 연간 고정비의 30%는 감가상각비이다. 20x1년 (주)세무의 안전한계율은 40%이고 법인세율이 25%일 경우, 법인세를 고려한 현금흐름분기점 매출액은? (단,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수익발생과 현금유입시점은 동일하고, 원가(비용)발생과 현금유출시점도 동일하며, 법인세 환수가 가능하다.)

① ₩1,080,000

② ₩1,200,000

③ ₩1,260,000

④ ₩1,800,000

⑤ ₩2,10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안전한계율과 세후이익으로 공헌이익률과 고정비를 역산한 뒤, 감가상각비의 비현금성 및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여 현금흐름분기점 매출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매출액은 3,000,000원, 세후이익은 360,000원, 안전한계율은 40%, 법인세율은 25%이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고정비의 30%이며, 현금흐름분기점에서는 법인세를 고려한 영업현금흐름이 0이 된다.

사용할 공식

안전한계율은 (매출액-손익분기점매출액)/매출액이다. 세후이익은 세전영업이익(1-t)이고, 영업현금흐름은 (공헌이익-고정비)(1-t)+감가상각비이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지만 현금유출이 아니므로 세후영업이익에 다시 더한다.

계산 과정

1.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3,000,000원의 60%인 1,800,000원이다.
2. 세전영업이익은 $360,000/(1-0.25)=480,000$원이다. 공헌이익률을 c라 하면, 손익분기점보다 초과한 매출액에 대한 공헌이익이 세전영업이익이므로 $(3,000,000-1,800,000)c=480,000$이다. 따라서 $c=40\%$이다.
3. 고정비는 $1,800,000\times0.4=720,000$원이고, 감가상각비는 $720,000\times0.3=216,000$원이다.
4. 현금흐름분기점 매출액을 S라 하면 $(0.4S-720,000)(1-0.25)+216,000=0$이다. 이를 풀면 $0.4S=720,000-216,000/0.75=432,000$이므로 $S=1,080,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계산한 법인세 고려 현금흐름분기점 매출액이 1,080,000원이므로 옳다.
② X. 1,200,0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금액 1,200,000원은 1,08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1,260,000원은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현금고정비 504,000원을 공헌이익률 40%로 나눈 금액이다. 틀린 금액 1,260,000원은 1,08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1,800,000원은 감가상각비의 비현금성을 반영하기 전의 회계적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다. 틀린 금액 1,800,000원은 1,08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2,100,0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금액 2,100,000원은 1,08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감가상각비를 단순히 고정비에서 제외한 뒤 법인세를 무시할 때 나오는 값이고, ④는 안전한계율로 구한 회계적 손익분기점 자체이다. 현금흐름분기점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세후이익에 다시 더하는 동시에 감가상각비가 만드는 법인세 절감 효과까지 반영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안전한계율로 회계적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고, 세후이익을 세전영업이익으로 환산하여 공헌이익률과 고정비를 역산한다. 그다음 (공헌이익-고정비)(1-t)+감가상각비=0을 풀어 현금흐름분기점 매출액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현금흐름은 세후영업이익에 비현금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더한 값이다:
영업현금흐름=영업이익(1-t)+감가상각비.

NoteBase

문 28. (주)세무는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 A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직접재료 B는 품질검사 직후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공정의 80%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당기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당기 생산 및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주)세무의 당기 완성품원가는?

구 분	물량 (전환원가 완성도)
기초재공품	500단위(60%)
당기 착수	4,500
당기 완성	3,500
기말재공품	1,000(60%)

구 분	직접재료원가		전환원가
	직접재료 A	직접재료 B	
기초재공품	₩11,200	₩0	₩18,000
당기발생원가	90,000	87,500	210,000

① ₩307,500

② ₩328,500

③ ₩336,700

④ ₩357,700

⑤ ₩377,45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선입선출법에서 당기 원가의 완성품 배부액을 계산하고, 검사시점에서 발생한 정상공손원가를 합격품에 추가 배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실제 공손수량은 500단위이다. 이는 수량 흐름식 500+4,500=3,500+1,000+공손으로 구한다.
정상공손은 당기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 3,500단위의 10%인 350단위이고, 비정상공손은 150단위이다.
직접재료 A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므로 공손품도 100% 투입된 것으로 본다. 직접재료 B는 검사 직후 투입되므로 검사에서 탈락한 공손품에는 투입되지 않는다. 기말재공품은 완성도 60%로 검사시점 80%에 도달하지 않아 직접재료 B가 투입되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선입선출법의 당기 완성도 환산량은 당기에 수행한 작업량만 반영한다.
단위당 당기원가는 당기발생원가 ÷ 당기 완성도 환산량이다.
당기 완성품원가는 기초재공품 완성원가+당기 착수·당기 완성품원가+완성품에 배분한 정상공손원가이다.
정상공손이 발생한 검사시점보다 기말재공품의 완성도가 낮으므로 정상공손원가는 검사를 통과한 완성품에만 배분한다.

계산 과정

1. 당기 완성도 환산량
직접재료 A: 3,000 + 1,000 + 500 = 4,500단위
직접재료 B: 3,500단위
전환원가: 500 × 40% + 3,000 + 1,000 × 60% + 500 × 80% = 4,200단위

2. 완성도 환산량 단위당 당기원가
직접재료 A: 90,000 ÷ 4,500 = 20원
직접재료 B: 87,500 ÷ 3,500 = 25원
전환원가: 210,000 ÷ 4,200 = 50원

3. 정상공손원가 배분 전 완성품원가
기초재공품 500단위의 완성원가는 29,200 + 500 × 25 + 500 × 40% × 50 = 51,700원이다.
당기 착수·당기 완성품 3,000단위의 원가는 3,000 × (20 + 25 + 50) = 285,000원이다.
따라서 정상공손원가 배분 전 완성품원가는 51,700 + 285,000 = 336,700원이다.

4. 정상공손원가 배분
정상공손 350단위의 원가는 350 × (20 + 80% × 50) = 21,000원이다. 공손품에는 검사 직후 투입되는 직접재료 B의 원가가 없다.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당기 완성품원가는 336,700 + 21,000 = 357,700원이다.

5. 원가 검산
배부할 총원가는 29,200 + 90,000 + 87,500 + 210,000 = 416,700원이다. 이는 완성품 357,700원, 비정상공손 150 × (20 + 80% × 50) = 9,000원, 기말재공품 1,000 × (20 + 60% × 50) = 50,000원의 합계와 일치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307,500원은 정상공손원가 배분 전 완성품원가 336,700원에서 기초재공품의 전기 이전원가 29,200원을 누락한 금액이다. 기초재공품의 전기 이전원가와 정상공손원가를 모두 포함하면 357,700원이다.
② X. 328,500원은 정상공손원가를 배분한 뒤에도 기초재공품의 전기 이전원가 29,200원을 누락한 금액이다. 전기 이전원가까지 포함한 완성품원가는 328,500원이 아니라 357,700원이다.
③ X. 336,700원은 정상공손원가 21,000원을 배분하기 전의 완성품원가이다. 정상공손원가를 추가하면 357,700원이다.
④ O. 정상공손원가 배분 전 완성품원가 336,700원에 정상공손원가 21,000원을 배분하면 357,700원이 된다.
⑤ X. 377,450원을 완성품원가로 잡으면 비정상공손 9,000원과 기말재공품 50,000원을 합한 총배부액이 436,450원이 되어 배부할 총원가 416,700원을 19,750원 초과한다. 올바른 완성품원가는 377,450원이 아니라 357,7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336,700원은 정상공손원가 배분 직전 금액이어서 가장 직접적인 함정이다. 또한 검사 직후 투입되는 직접재료 B를 공손품에 포함하거나, 선입선출법에서 기초재공품의 전기 이전원가 29,200원을 완성품원가에서 빠뜨리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량 흐름으로 실제 공손수량을 구한 뒤,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을 나누고, 원가요소별 투입시점에 따라 완성도 환산량을 계산한다. 그다음 기초재공품 완성원가와 당기 착수·당기 완성품원가를 합산하고, 검사시점을 통과한 합격품에 정상공손원가를 배분한다.

암기 포인트

선입선출법은 당기 작업량만으로 단위당 당기원가를 구하고, 검사 직후 투입 원가는 검사에서 탈락한 공손품에 배부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9.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당기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당기 직접노무시간당 실제임률은?

제품 실제생산량	1,000단위
직접노무원가 실제 발생액	₩1,378,000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5.5시간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50,000(유리)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	₩53,000(불리)

① ₩230
② ₩240
③ ₩250
④ ₩260
⑤ ₩27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직접노무원가의 임률차이와 능률차이를 이용해 표준임률과 실제직접노무시간을 차례로 구한 뒤, 시간당 실제임률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실제생산량: 1,000단위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5.5시간
직접노무원가 실제발생액: ₩1,378,000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50,000 유리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 ₩53,000 불리
구해야 할 값: 직접노무시간당 실제임률

NoteBase

사용할 공식

표준허용시간은 $SH = Q \times t_s$이다.
직접노무원가 총차이는 $AC - SH \times SR$이며, 임률차이와 능률차이의 합과 같다.
능률차이가 유리하면 $SR \times (SH - AH)$이고, 임률차이가 불리하면 $AH \times (AR - SR)$이다.
여기서 Q는 실제생산량, t_s는 단위당 표준시간, AC는 실제노무원가, SH는 표준허용시간, AH는 실제시간, SR은 표준임률, AR은 실제임률이다. 두 차이는 실제노무원가와 표준노무원가의 차이를 임률 요인과 능률 요인으로 나눈 것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표준허용시간을 계산한다. 실제생산량 1,000단위에 단위당 표준시간 5.5시간을 곱하면 SH는 5,500시간이다.
2. 불리를 양수, 유리를 음수로 보면 총차이는 ₩53,000-₩50,000=₩3,000 불리이다. 따라서 표준허용 직접노무원가는 ₩1,378,000-₩3,000=₩1,375,000이다.
3. 표준임률을 계산한다. ₩1,375,000을 5,500시간으로 나누면 SR은 ₩250/시간이다.
4. 능률차이 공식 $50{,}000 = 250 \times (5{,}500 - AH)$에 따라 AH는 5,300시간이다.
5. 실제임률 공식 $AR = AC/AH$에 실제노무원가 ₩1,378,000과 실제시간 5,300시간을 대입하면 AR은 ₩260/시간이다.

검산하면 임률차이는 5,300시간×(₩260/시간-₩250/시간)=₩53,000 불리로 주어진 값과 일치한다.

선지 판단

① X — ₩230은 실제발생액을 실제시간으로 나눈 ₩260과 다르다. 틀린 값 ₩230은 ₩260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240은 실제발생액 ₩1,378,000을 실제시간 5,300시간으로 나눈 값이 아니다. 틀린 값 ₩240은 ₩260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250은 계산된 표준임률이며, 문제에서 요구한 실제임률이 아니다. 틀린 값 ₩250은 실제임률 ₩260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실제임률은 ₩1,378,000÷5,300시간=₩260/시간이므로 옳다.
⑤ X — ₩270을 적용하면 실제노무원가가 ₩1,431,000이 되어 주어진 ₩1,378,000과 맞지 않는다. 틀린 값 ₩270은 ₩260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③의 ₩250을 실제임률로 고르는 것이다. ₩250은 총차이로 먼저 구한 표준임률이다. 또한 유리한 능률차이는 실제시간이 표준허용시간보다 적다는 뜻이므로, ₩50,000을 더해 실제시간을 5,700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준허용시간을 먼저 구하고, 임률차이와 능률차이를 불리·유리 부호에 따라 합쳐 표준임률을 구한다. 그다음 능률차이로 실제시간을 구한 뒤 실제노무원가를 실제시간으로 나누어 실제임률을 계산한다. 마지막에는 임률차이 공식으로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능률차이는 시간 차이, 임률차이는 시간당 임금 차이이다. 실제임률은 실제노무원가÷실제시간이다.

NoteBase

문 30. (주)세무는 단일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는 당기에 8,500단위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9,200단위를 완성하였고,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직접재료원가 ₩50, 전환원가 ₩30으로 전기와 동일하다. (주)세무의 당기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315,000일 경우,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구 분	기초재고	기말재고
재공품(전환원가 완성도)	1,500단위(40%)	800단위(50%)
제 품	800	1,000

① ₩300,000

② ₩309,000

③ ₩315,000

④ ₩321,000

⑤ ₩33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부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가 재고에 포함된 전환원가의 증감에서 발생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전부원가계산에서는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를 모두 재고자산에 포함하지만, 초변동원가계산에서는 직접재료원가만 재고자산에 포함하고 전환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두 방법의 영업이익을 비교할 때 직접재료원가는 차이를 만들지 않으며, 기초·기말 재공품과 제품에 포함된 전환원가만 비교한다. 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전기와 당기 모두 30원이다.

사용할 공식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초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기말재고 전환원가-기초재고 전환원가
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은 재공품 수량에 전환원가 완성도를 곱하고, 제품은 완성도가 100%이므로 제품 수량 전부를 포함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초재고의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은 $1,500 \times 40\% + 800 = 1,400$단위이다. 따라서 기초재고 전환원가는 1,400단위 × 30원 = 42,000원이다.
2. 기말재고의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은 $800 \times 50\% + 1,000 = 1,400$단위이다. 따라서 기말재고 전환원가는 1,400단위 × 30원 = 42,000원이다.
3. 기말재고 전환원가와 기초재고 전환원가가 같으므로 두 원가계산방법의 영업이익 차이는 42,000원 - 42,000원 = 0원이다.
4. 초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은 315,000원 - 0원 = 315,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300,000원은 계산 결과보다 15,000원 작다. 재고의 단순 수량 감소 500단위에 전환원가 30원을 곱하고 그 효과의 방향까지 반대로 적용하면 나오는 값이다. 올바른 금액은 315,000원이다.
② X — 309,000원은 계산 결과보다 6,000원 작다. 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 감소분 200단위만 반영하고 제품 증가분 200단위를 누락한 데다 방향을 반대로 적용한 값이다. 올바른 금액은 315,000원이다.
③ O —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포함된 전환원가가 모두 42,000원이어서 전부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같다. 따라서 315,000원이 맞다.
④ X — 321,000원은 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 감소분 200단위 × 30원 = 6,000원만 반영하고, 제품 재고 증가 200단위 × 30원 = 6,000원의 상쇄 효과를 누락한 값이다. 올바른 금액은 315,000원이다.
⑤ X — 330,000원은 기초·기말 재고의 물량 차이 500단위에 30원을 곱한 15,000원을 더한 값이다. 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를 반영하면 기초와 기말의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은 모두 1,400단위이므로 올바른 금액은 315,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재공품과 제품의 단순 수량 합계만 비교하면 안 된다. 전환원가는 재공품 수량에 전환원가 완성도를 적용하여 완성품환산량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직접재료는 두 방법 모두 재고자산에 포함하므로 영업이익 차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초·기말 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을 구하고 제품 수량을 더한다. 그 차이에 전환원가 단위당 원가를 곱한 뒤,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초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의 부호에 맞추어 영업이익을 조정한다.

암기 포인트

전부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의 이익 차이는 재고 속 전환원가의 증감이며, 재공품은 반드시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으로 비교한다.

NoteBase

문 31. 20x1년에 영업을 개시한 (주)세무는 단일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전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주)세무는 20x1년 2,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여 단위당 ₩1,800에 판매하였으며,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 제조원가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4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	30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	200
고정제조간접원가	:	250,000
○ 판매관리비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	₩100
고정판매관리비	:	150,000

(주)세무의 20x1년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00,000이 많을 경우, 판매수량은?

① 200단위

② 400단위

③ 800단위

④ 1,200단위

⑤ 1,600단위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가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에서 발생한다는 원리를 이용해 판매수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수량: 2,000단위
고정제조간접원가: 250,000원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보다 큰 금액: 200,000원
기초재고: 영업 개시 연도이므로 0단위
구해야 할 값: 판매수량

NoteBase

사용할 공식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frac{250{,}000}{2{,}000} = 125$
계산 결과는 단위당 125원이다.

영업이익 차이를 ΔI, 기말재고수량을 Q_E,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를 F라고 하면:
$\Delta I = Q_E \times F$

전부원가계산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고정제조간접원가가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다음 기간으로 이연되지만, 변동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250,000원 ÷ 2,000단위 = 125원/단위이다.
2. 기말재고수량은 200,000원 ÷ 125원/단위 = 1,600단위이다.
3.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판매수량은 2,000단위 - 1,600단위 = 400단위이다.

선지 판단

① X — 200단위는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수량이며, 올바른 판매수량은 400단위이다.
② O — 계산된 판매수량 400단위와 일치한다.
③ X — 800단위는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수량이며, 올바른 판매수량은 400단위이다.
④ X — 1,200단위는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수량이며, 올바른 판매수량은 400단위이다.
⑤ X — 1,600단위는 판매수량이 아니라 계산된 기말재고수량이다. 올바른 판매수량은 400단위이다.

오답 포인트

⑤의 1,600단위는 이익 차이 200,000원을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125원으로 나누어 얻는 기말재고수량이다. 이를 곧바로 판매수량으로 고르면 틀린다. 생산수량에서 기말재고수량을 차감해야 한다.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변동제조간접원가와 판매관리비는 두 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를 만드는 항목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영업 개시 연도에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아 전부원가계산이익이 더 크면, 먼저 이익 차이를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로 나누어 기말재고수량을 구한 뒤 생산수량에서 차감한다.

암기 포인트

전부원가계산이익과 변동원가계산이익의 차이는 재고에 이연된 고정제조간접원가이다.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으면 전부원가계산이익이 더 크다.

NoteBase

문 32. (주)세무는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 조정하고 있다. 당기의 직접재료매입액은 ₩21,000이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7,000(과소배부)이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는 ₩90,000이다. 당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노무원가가 기초원가(prime cost)의 60%인 경우, 당기에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구분	직접재료	재공품	제품
기초재고	₩3,000	₩50,000	₩70,000
기말재고	4,000	45,000	60,000

① ₩18,000

② ₩25,000

③ ₩30,000

④ ₩32,000

⑤ ₩37,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을 역산하여 배부 제조간접원가를 구한 뒤, 과소배부액을 더하여 실제 제조간접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직접재료 기초재고는 ₩3,000, 기말재고는 ₩4,000, 당기 매입액은 ₩21,000이다. 재공품 기초재고는 ₩50,000, 기말재고는 ₩45,000이고, 제품 기초재고는 ₩70,000, 기말재고는 ₩60,000이다. 배부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는 ₩90,000이며, 제조간접원가는 ₩7,000 과소배부되었다. 직접노무원가는 기초원가의 60%이다. 구해야 할 값은 당기의 실제 제조간접원가이다.

사용할 공식

직접재료사용액=기초 직접재료+매입액-기말 직접재료

당기제품제조원가=조정 전 매출원가+기말 제품-기초 제품

당기총제조원가=당기제품제조원가+기말 재공품-기초 재공품

실제 제조간접원가=배부 제조간접원가+과소배부액

재료·재공품·제품 계정의 원가 흐름을 차례로 역산하면 배부 제조간접원가를 구할 수 있다. 과소배부는 실제 발생액이 배부액보다 큰 상태이므로 실제액을 구할 때 과소배부액을 더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직접재료사용액은 ₩3,000＋₩21,000－₩4,000＝₩20,000이다.
2. 직접노무원가가 기초원가의 60%이므로 직접재료원가는 기초원가의 40%이다. 따라서 직접노무원가는 ₩20,000×60%÷40%＝₩30,000이다.
3. 당기제품제조원가는 ₩90,000＋₩60,000－₩70,000＝₩80,000이다.
4. 당기총제조원가는 ₩80,000＋₩45,000－₩50,000＝₩75,000이다.
5. 배부 제조간접원가는 ₩75,000－₩20,000－₩30,000＝₩25,000이다.
6. ₩7,000 과소배부이므로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25,000＋₩7,000＝₩32,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18,000'은 배부 제조간접원가 ₩25,000에서 과소배부액 ₩7,000을 잘못 뺀 값이다. 과소배부액은 더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실제 제조간접원가가 ₩32,000이다.
② X — '₩25,000'은 실제 제조간접원가가 아니라 재공품 원가 흐름에서 구한 배부 제조간접원가이다. 올바르게는 여기에 과소배부액 ₩7,000을 더한 ₩32,000이다.
③ X — '₩30,000'은 기초원가 비율로 구한 직접노무원가이다. 제조간접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구분해야 하며, 올바른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32,000이다.
④ O — 배부 제조간접원가 ₩25,000에 과소배부액 ₩7,000을 더하면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32,000이다.
⑤ X — '₩37,000'은 직접노무원가 ₩30,000을 배부 제조간접원가로 잘못 보고 과소배부액을 더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배부 제조간접원가 ₩25,000에 ₩7,000을 더한 ₩32,000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과소배부'의 방향이다. 과소배부액은 실제 제조간접원가가 배부 제조간접원가보다 큰 금액이므로 실제액을 구할 때 더한다. 또한 ₩25,000은 배부액이고 ₩30,000은 직접노무원가이므로 두 금액을 실제 제조간접원가와 혼동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직접재료 계정에서 재료사용액을 구하고, 제품 계정에서 당기제품제조원가를, 재공품 계정에서 당기총제조원가를 역산한다. 그다음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차감하여 배부 제조간접원가를 구한 뒤, 과소배부는 더하고 과대배부는 빼서 실제 제조간접원가로 바꾼다.

암기 포인트

실제 제조간접원가＝배부 제조간접원가＋과소배부액, 배부 제조간접원가－과대배부액이다.

NoteBase

문 33. (주)세무는 기존에 생산중인 티셔츠 제품계열에 새로운 색상인 하늘색과 핑크색 중 한 가지 제품을 추가할 것을 고려중이다. 추가될 제품은 현재의 시설로 생산가능하지만, 각각 ₩200,000의 고정원가 증가가 요구된다. 두 제품의 판매단가는 ₩10, 단위당 변동원가는 ₩8으로 동일하다. 마케팅부서는 두 제품의 시장수요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확률분포를 제공하였다. (주)세무의 기대영업이익을 최대화하는 관점에서 두 제품 중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품과 유리한 영업이익차이 모두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수요량	기대확률	
	하늘색	핑크색
50,000단위	0.0	0.1
100,000	0.2	0.1
200,000	0.2	0.2
300,000	0.4	0.2
400,000	0.2	0.4

① 핑크색, ₩30,000

② 하늘색, ₩32,000

③ 핑크색, ₩34,000

④ 하늘색, ₩36,000

⑤ 핑크색, ₩38,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각 제품의 기대수요량을 구한 뒤 단위당 공헌이익을 곱하고 고정원가를 차감하여 기대영업이익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판매단가는 단위당 ₩10, 변동원가는 단위당 ₩8이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은 ₩2이다. 두 제품 모두 추가 고정원가는 ₩200,000으로 같다. 따라서 두 제품의 기대영업이익 차이는 기대수요량 차이에 단위당 공헌이익 ₩2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기대수요량=Σ(수요량×확률)
기대영업이익=기대수요량×(판매단가-단위당 변동원가)-고정원가
수요량별 확률이 주어져 있으므로 가중평균으로 기대수요량을 구하고, 여기에 단위당 공헌이익을 곱하여 기대공헌이익을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하늘색의 기대수요량은
$50{,}000 \times 0 + 100{,}000 \times 0.2 + 200{,}000 \times 0.2 + 300{,}000 \times 0.4 + 400{,}000 \times 0.2 = 260{,}000$
단위이다.
2. 핑크색의 기대수요량은
$50{,}000 \times 0.1 + 100{,}000 \times 0.1 + 200{,}000 \times 0.2 + 300{,}000 \times 0.2 + 400{,}000 \times 0.4 = 275{,}000$
단위이다.
3. 하늘색의 기대영업이익은 $260{,}000 \times (10 - 8) - 200{,}000 = 320{,}000$원이므로 ₩320,000이다.
4. 핑크색의 기대영업이익은 $275{,}000 \times (10 - 8) - 200{,}000 = 350{,}000$원이므로 ₩350,000이다.
5. 핑크색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기대영업이익 차이는 ₩350,000-₩320,000=₩30,000이다.

선지 판단

① O — 핑크색의 기대영업이익이 하늘색보다 ₩30,000 크므로 옳다.
② X — '하늘색, ₩32,000'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핑크색, ₩30,000'이다.
③ X — 제품은 핑크색이 맞지만 '₩34,000'이 틀렸다. 올바른 영업이익 차이는 ₩30,000이다.
④ X — '하늘색, ₩36,000'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핑크색, ₩30,000'이다.
⑤ X — 제품은 핑크색이 맞지만 '₩38,000'이 틀렸다. 올바른 영업이익 차이는 ₩30,000이다.

오답 포인트

기대수요량만 비교하면 핑크색이 15,000단위 더 유리하다. 그러나 문제는 기대영업이익 차이를 묻고 있으므로 이 차이에 단위당 공헌이익 ₩2를 곱해야 한다. 두 제품의 고정원가가 동일하므로 고정원가는 이익 차이 계산에서 상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확률분포가 주어진 제품별 이익 비교에서는 먼저 수요량과 확률의 곱을 합산하여 기대수요량을 구하고, 단위당 공헌이익을 곱한 뒤 제품별 고정원가를 차감한다. 공통으로 발생하는 고정원가는 두 대안의 차이에서는 상쇄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기대영업이익은 기대수요량×단위당 공헌이익-고정원가이며, 같은 고정원가는 대안 간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NoteBase

문 34. 올해 창업한 (주)세무는 처음으로 A광역시로부터 도로청소 특수차량 4대의 주문을 받았다. 이 차량은 주로 수작업을 통해 제작되며, 소요될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특수차량 4대에 대한 총제조원가는? (단, 직접노무시간은 80% 누적평균시간학습모형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 1대당 직접재료원가 : ₩85,000
◯ 첫 번째 차량 생산 직접노무시간 : 100시간
◯ 직접노무원가 : 직접노무시간당 ₩1,000
◯ 제조간접원가 : 직접노무시간당 ₩500

① ₩542,000
② ₩624,000
③ ₩682,000
④ ₩724,000
⑤ ₩802,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80% 누적평균시간학습모형을 적용해 4대의 총직접노무시간을 구한 뒤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를 합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차량 1대당 직접재료원가는 85,000원, 첫 번째 차량의 직접노무시간은 100 시간, 시간당 직접노무원가는 1,000원, 시간당 제조간접원가는 5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차량 4대의 총제조원가이다.
주의할 조건: 80% 누적평균시간학습모형에서는 누적생산량이 두 배가 될 때마다 단위당 누적평균시간이 직전의 80%가 된다.

사용할 공식

누적생산량이 1 → 2 → 4로 두 번 배가되므로 4대 생산 시 단위당 누적평균시간은 100×0.8^2=64 시간이다.
총직접노무시간은 누적생산량×단위당 누적평균시간이고, 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이다. 누적평균시간학습모형이 제시되었으므로 네 번째 차량 한 대의 시간이 아니라 4대 전체의 평균시간을 먼저 구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4대의 단위당 누적평균시간: 100×0.8^2=64 시간
2. 총직접노무시간: 64×4=256 시간
3. 직접재료원가: 85,000원 × 4대 = 340,000원
4. 직접노무원가: 1,000원 × 256시간 = 256,000원
5. 제조간접원가: 500원 × 256시간 = 128,000원
6. 총제조원가: 340,000원 + 256,000원 + 128,000원 = 724,000원

선지 판단

① X. 542,000원은 직접재료원가 340,000원과 학습효과를 반영한 직접노무원가 256,000원 및 제조간접원가 128,000원을 모두 합한 금액이 아니다. 올바른 총제조원가는 724,000원이다.
② X. 624,000원은 4대의 총직접노무시간 25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 원가요소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340,000원 + 256,000원 + 128,000원 = 724,000원이다.
③ X. 682,000원은 누적평균시간 64시간에서 산출한 총직접노무시간 256시간을 정확히 적용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총제조원가는 724,000원이다.
④ O. 직접재료원가 340,000원, 직접노무원가 256,000원, 제조간접원가 128,000원의 합계가 724,000원이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⑤ X. 802,000원은 계산 결과 724,000원보다 78,000원 크다. 올바른 총제조원가는 724,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80%를 네 번째 차량에만 적용하거나 4대의 총시간을 100 × 4로 계산하면 누적평균시간학습효과를 잘못 처리하게 된다. 이 문제의 64시간은 네 번째 차량만의 시간이 아니라 4대 생산 시 단위당 누적평균시간이며, 여기에 4대를 곱해 총 256시간을 구해야 한다. 또한 제조간접원가도 같은 총직접노무시간 25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누적평균시간학습모형에서는 먼저 생산량이 몇 번 두 배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단위당 누적평균시간을 구한다. 그 평균시간에 누적생산량을 곱해 총노무시간을 산출한 뒤, 시간 기준 원가와 수량 기준 원가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80% 누적평균모형: 생산량이 두 배가 될 때마다 단위당 누적평균시간도 80%가 된다. 1대 100시간이면 2대 평균 80시간, 4대 평균 64시간, 4대 총시간은 256시간이다.

NoteBase

문 35. (주)세무는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온라인 강의설비를 ₩280,000에 구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설비는 향후 5년에 걸쳐서 강사료, 시설관리비 등에서 ₩330,000의 현금절감효과를 가진다. 현금절감액은 연중 균일하게 발생하지만, 연도별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이 균일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비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은?

연 도	1	2	3	4	5
현금절감액	₩100,000	₩80,000	₩60,000	₩50,000	₩40,000

① 3.2년

② 3.4년

③ 3.5년

④ 3.6년

⑤ 3.8년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회수기간은 투자원금을 누적 현금절감액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며, 회수연도 중 현금흐름이 균일하다는 조건을 이용해 연도 미만의 기간까지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설비 투자액: 280,000원
연도별 현금절감액: 1년 차 100,000원, 2년 차 80,000원, 3년 차 60,000원, 4년 차 50,000원, 5년 차 40,000원
구해야 할 값: 누적 현금절감액이 280,000원에 도달하는 시점
주의할 조건: 각 연도의 현금절감액은 연중 균일하게 발생한다.

사용할 공식

회수기간=회수 직전까지의 완전한 연수+회수 직전의 미회수액회수연도의 현금절감액
누적 현금절감액이 투자액을 처음 넘는 해가 4년 차이므로, 3년이 지난 뒤 남은 미회수액이 4년 차 현금절감액의 몇 배인지 계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3년 차 말까지의 누적 현금절감액은 100,000원 + 80,000원 + 60,000원 = 240,000원이다.
2. 3년 차 말의 미회수액은 280,000원 - 240,000원 = 40,000원이다.
3. 4년 차 현금절감액 50,000원은 연중 균일하게 발생하므로, 40,000원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40,000/50,000 = 0.8년이다.
4. 따라서 회수기간은 3 + 0.8 = 3.8년이다.

선지 판단

① X — 3.2년에는 투자액 280,000원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다. 틀린 값 3.2년은 올바르게는 3.8년이다.
② X — 3년 차 말의 미회수액 40,000원을 4년 차 절감액 50,000원으로 나누면 0.8년이므로 3.4년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3.8년이다.
③ X — 4년 차의 절반인 0.5년 동안 회수되는 금액은 25,000원으로 미회수액 40,000원보다 작다. 올바르게는 3.8년이다.
④ X — 4년 차의 0.6년 동안 회수되는 금액은 30,000원으로 미회수액 40,000원보다 작다. 올바르게는 3.8년이다.
⑤ O — 3년 차 말까지 240,000원을 회수하고, 남은 40,000원을 4년 차의 0.8년 동안 회수하므로 회수기간은 3.8년이다.

오답 포인트

총 현금절감액 330,000원을 5년으로 단순평균하면 연도별 현금흐름이 불균일하다는 조건을 무시하게 된다. 실제 누적액을 연도별로 더해 회수연도를 찾고, 회수연도 안에서는 미회수액을 그해 현금절감액으로 나누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도별 현금흐름을 누적하여 투자액을 처음 회수하는 연도를 찾은 뒤, 직전 연도 말의 미회수액을 회수연도의 현금흐름으로 나누어 연도 미만의 기간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회수기간은 '직전 완전연수 + 미회수액 ÷ 회수연도 현금흐름'이다.

NoteBase

문 36. 손세정제를 제조하는 (주)세무의 20x1년도 직접재료예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구한 2분기의 직접재료구매예산액은?

◯ 판매예산에 따른 각 분기별 제품판매량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00통	3,000통	5,000통	2,000통

◯ 각 분기별 기말목표 제품재고량은 다음 분기 판매량의 20%로 한다.
◯ 각 분기별 기말목표 재료재고량은 다음 분기 제품생산량에 필요한 재료량의 10%로 한다.
◯ 손세정제 1통을 만드는데 20*kg*의 재료가 필요하다.
◯ 재료의 구입단가는 kg당 ₩2이다.

① ₩106,000
② ₩124,000
③ ₩140,000
④ ₩152,000
⑤ ₩156,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제품 판매량에서 제품생산량을 구한 뒤, 다음 분기 생산량에 연동되는 기말 재료재고까지 반영하여 2분기 직접재료구매예산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분기별 판매량은 1분기 1,000통, 2분기 3,000통, 3분기 5,000통, 4분기 2,000통이다.
기말목표 제품재고량은 다음 분기 판매량의 20%이고, 기말목표 재료재고량은 다음 분기 제품생산량에 필요한 재료량의 10%이다.
제품 1통당 재료 소요량은 20*kg*, 재료 구입단가는 *kg*당 ₩2이다.

사용할 공식

제품생산량=판매량+기말제품재고량-기초제품재고량
재료구매량=생산 필요량+기말재료재고량-기초재료재고량
직접재료구매예산액=재료구매량×재료 구입단가
판매량을 충족하면서 목표 기말재고를 확보해야 하므로 기말재고는 더하고, 전기에서 이월된 기초재고는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뺀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분기 기초 제품재고는 1분기 기말 제품재고이므로 3,000 × 20% = 600통이고, 2분기 기말 제품재고는 5,000 × 20% = 1,000통이다. 따라서 2분기 제품생산량은 3,000 + 1,000 − 600 = 3,400통이다.
2. 3분기 기초 제품재고는 1,000통이고, 3분기 기말 제품재고는 2,000 × 20% = 400통이다. 따라서 3분기 제품생산량은 5,000 + 400 − 1,000 = 4,400통이다.
3. 2분기 생산에 필요한 재료량은 3,400 × 20 = 68,000*kg*이다.
4. 2분기 기초 재료재고는 1분기 말에 확보한 2분기 생산 필요량의 10%이므로 68,000 × 10% = 6,800*kg*이다. 2분기 기말 재료재고는 3분기 생산 필요량의 10%이므로 4,400 × 20 × 10% = 8,800*kg*이다.
5. 2분기 재료구매량은 68,000 + 8,800 − 6,800 = 70,000*kg*이고, 직접재료구매예산액은 70,000 × 2인 ₩140,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106,000은 계산된 직접재료구매예산액 ₩140,000과 일치하지 않는다. '₩106,000'은 '₩140,000'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124,000은 2분기 재료구매량 70,000*kg*에 *kg*당 ₩2를 곱한 금액이 아니다. '₩124,000'은 '₩140,000'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2분기 재료구매량 70,000*kg*에 *kg*당 ₩2를 곱하면 ₩140,000이 된다.
④ X — ₩152,000은 계산 결과보다 ₩12,000 많다. '₩152,000'은 '₩140,000'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156,000은 계산 결과보다 ₩16,000 많다. '₩156,000'은 '₩140,000'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2분기 기말 재료재고를 구하려면 3분기 판매량이 아니라 3분기 제품생산량 4,400통을 먼저 구해야 한다. 또한 재료구매량 계산에서 기말 재료재고는 더하고 기초 재료재고는 빼며, 마지막에 *kg*당 구입단가를 곱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판매량 → 제품생산량 → 생산 필요 재료량 → 재료구매량 → 구매예산액의 순서로 계산한다. 기말 재료재고가 다음 분기 생산량에 연동되면 다음 분기의 제품생산량까지 먼저 산출한다.

암기 포인트

생산량과 재료구매량은 모두 '당기 필요량 + 기말목표재고 - 기초재고' 구조이며, 재료구매예산액은 재료구매량에 구입단가를 곱한 금액이다.

NoteBase

문 37. (주)세무는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하고 있는데, (주)대한으로부터 제품 A 전량을 단위당 ₩18에 공급하는 제안을 받았다. 이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주)세무의 회계부서에서 분석한 제품 A에 대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A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제품 A 감독자는 추가비용 없이 해고가능하고, 특수기계는 제품 A 제조에만 사용되는 전용기계이다. 공통간접원가는 공장임대료 등으로 제품 A 생산라인을 폐쇄하더라도 감소하지 않는다. 제품 A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여유생산 능력으로 제품 B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증가되는 수익은 ₩5,000이고 증가되는 원가는 ₩3,000이다. (주)세무가 (주)대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자가생산하는 것보다 얼마나 유리(불리)한가?

구 분	단 가	1,000단위
직접재료원가	₩5	₩5,000
직접노무원가	4	4,000
변동제조간접원가	1	1,000
감독자급여	3	3,000
특수기계감가상각비	2	2,000
공통간접원가배분액	5	5,000
제조원가 합계	₩20	₩20,000

① ₩3,000 유리

② ₩3,000 불리

③ ₩4,000 유리

④ ₩4,000 불리

⑤ ₩5,000 불리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자가생산과 외부구입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차이가 나는 관련원가와 여유생산능력의 기회원가를 합해 비교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생산량은 1,000단위이다.
자가생산을 중단하면 직접재료원가 5,000원, 직접노무원가 4,000원, 변동제조간접원가 1,000원, 감독자급여 3,000원을 피할 수 있다.
특수기계 감가상각비 2,000원은 이미 보유한 전용기계의 장부상 비용이고 처분가치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관련원가가 아니다. 공통간접원가 배분액 5,000원도 생산라인 폐쇄 후 감소하지 않으므로 관련원가가 아니다.
제품 A를 생산하지 않으면 제품 B에서 5,000원의 수익과 3,000원의 원가가 증가하므로 추가 이익은 2,000원이다. 이 추가 이익은 제품 A를 자가생산할 때 포기하는 기회원가이다.

사용할 공식

자가생산 관련원가 = 회피가능 제조원가 + 자가생산으로 포기하는 기회이익
외부구입 관련원가 = 구입가격 × 구입수량
제안 수락의 유리·불리 = 자가생산 관련원가 - 외부구입 관련원가
이 공식은 두 대안 사이에서 달라지는 미래 현금흐름만 비교하기 위해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회피가능 제조원가는 5,000원 + 4,000원 + 1,000원 + 3,000원 = 13,000원이다.
2. 제품 B의 추가 이익은 5,000원 - 3,000원 = 2,000원이므로 자가생산의 기회원가는 2,000원이다.
3. 자가생산 관련원가는 13,000원 + 2,000원 = 15,000원이다.
4. 외부구입원가는 18원 × 1,000단위 = 18,000원이다.
5. 제안 수락의 차이는 15,000원 - 18,000원 = -3,000원이므로 외부구입이 자가생산보다 3,000원 불리하다.

선지 판단

① X — 외부구입은 3,000원 유리가 아니라 3,000원 불리하다. 올바르게는 '3,000원 불리'이다.
② O — 외부구입원가 18,000원이 자가생산 관련원가 15,000원보다 3,000원 크므로 제안 수락은 3,000원 불리하다.
③ X — 4,000원 유리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3,000원 불리'이다.
④ X — 불리한 방향은 맞지만 차액은 4,000원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3,000원 불리'이다.
⑤ X — 공통간접원가 등 대안 간 차이가 없는 원가를 관련원가로 처리하면 차액을 잘못 계산하게 된다. 올바르게는 '3,000원 불리'이다.

오답 포인트

특수기계가 제품 A 전용이라는 사실만으로 감가상각비를 회피가능원가에 넣으면 안 된다. 처분가치가 제시되지 않은 기존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대안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제품 B의 증가수익 5,000원 전액이 아니라 증가원가 3,000원을 뺀 추가 이익 2,000원만 기회원가로 포함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부구입 의사결정에서는 먼저 각 원가가 생산 중단으로 실제 사라지는지 판별하고, 유휴능력의 대체 사용에서 얻는 추가 이익을 자가생산의 기회원가에 더한 뒤 외부구입원가와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관련원가는 '없어지는 원가 + 포기하는 이익'이고, 없어지지 않는 감가상각비와 배부 공통원가는 제외한다.

NoteBase

문 38. (주)세무는 에어컨을 제조하는데, 에어컨의 품질원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품질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생산판매단위: 6,000개 ◯ 시험검사 노무임률: ₩60
◯ 판매단가: ₩1,500 ◯ 재작업율: 10%
◯ 단위당 변동원가: ₩800 ◯ 단위당 재작업원가: ₩400
◯ 제품설계시간: 1,000시간 ◯ 보증수리비율: 5%
◯ 제품설계 노무임률: ₩80 ◯ 단위당 수리원가: ₩500
◯ 단위당 시험검사시간: 0.5시간 ◯ 품질로 인해 상실된 추정판매량: 400개

① 예방원가는 ₩80,000이다.

② 평가원가는 ₩180,000이다.

③ 내부실패원가는 ₩240,000이다.

④ 외부실패원가는 ₩150,000이다.

⑤ 총품질원가는 ₩930,000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품질원가를 예방원가·평가원가·내부실패원가·외부실패원가로 분류하고, 품질 문제로 상실한 판매의 기회비용을 공헌이익으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예방활동: 제품설계 1,000시간, 노무임률 80원
평가활동: 생산판매량 6,000개, 단위당 시험검사시간 0.5시간, 노무임률 60원
내부실패: 재작업률 10%, 단위당 재작업원가 400원
외부실패: 보증수리비율 5%, 단위당 수리원가 500원, 품질로 인한 상실판매량 400개
상실판매 1개당 공헌이익: 판매단가 1,500원 - 단위당 변동원가 800원 = 700원

NoteBase

사용할 공식

예방원가 = 제품설계시간 × 제품설계 노무임률
평가원가 = 생산판매량 × 단위당 시험검사시간 × 시험검사 노무임률
내부실패원가 = 생산판매량 × 재작업률 × 단위당 재작업원가
외부실패원가 = 보증수리비 + 상실판매의 공헌이익
상실판매의 공헌이익 = 상실판매량 × (판매단가 - 단위당 변동원가)

제품설계와 시험검사는 각각 불량 예방 및 출하 전 평가 활동이고, 재작업은 출하 전 발견된 실패이며, 보증수리와 품질로 인한 상실판매는 출하 후 발생한 실패이므로 이 분류를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예방원가는 $1,000 \times 80 = 80,000$원이다.
2. 평가원가는 $6,000 \times 0.5 \times 60 = 180,000$원이다.
3. 내부실패원가는 $6,000 \times 10\% \times 400 = 240,000$원이다.
4. 보증수리비는 $6,000 \times 5\% \times 500 = 150,000$원이다.
5. 상실판매의 공헌이익은 $400 \times (1,500 - 800) = 280,000$원이다.
6. 외부실패원가는 $150,000 + 280,000 = 430,000$원이다.
7. 총품질원가는 $80,000 + 180,000 + 240,000 + 430,000 = 93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제품설계원가는 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원가이며, 1,000시간 × 80원 = 80,000원이다.
② O — 시험검사원가는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원가이며, 6,000개 × 0.5시간 × 60원 = 180,000원이다.
③ O — 재작업원가는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내부실패원가이며, 6,000개 × 10% × 400원 = 240,000원이다.
④ X — '외부실패원가는 150,000원'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150,000원은 보증수리비만 계산한 금액이다. 품질로 인한 상실판매의 공헌이익 280,000원도 포함하므로 외부실패원가는 430,000원이다.
⑤ O — 네 품질원가를 합하면 80,000원 + 180,000원 + 240,000원 + 430,000원 = 93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보증수리비 150,000원만 외부실패원가로 보고, 품질 문제로 잃은 판매의 기회비용을 빠뜨리게 만드는 선지이다. 상실판매액 600,000원 전체가 아니라 상실판매에서 얻었을 공헌이익 280,000원을 더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활동을 예방·평가·내부실패·외부실패로 분류한 뒤 각 금액을 계산한다. 품질 때문에 판매를 잃었다면 매출액이 아니라 상실판매량에 단위당 공헌이익을 곱한 기회비용을 외부실패원가에 포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설계는 예방, 검사는 평가, 재작업은 내부실패, 보증수리와 상실판매 공헌이익은 외부실패이다.

NoteBase

문 39. (주)세무는 CCTV 장비를 제조하여 고객에게 설치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장비제조는 제조부서에서 장비설치는 설치부서에서 수행하는데, 장비설치에 대한 수요는 연간처리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주)세무는 제약자원개념하에서 운영개선을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의 자료를 수집했다. 장비의 단위당 설치판매 가격은 ₩40,000이고,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30,000이다. 직접재료원가 이외의 모든 원가는 고정되어 있고 장비설치 오류시 해당 장비는 폐기된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주)세무가 영업이익 증가를 위해 취하는 행동으로 옳은 것은?

구 분	장비제조	장비설치
연간처리능력	400개	300개
연간제조설치량	300개	300개

① 장비설치 부서에 두 명의 작업자를 고정배치하여 연간 설치수량을 20개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두 명의 작업자에 대해서 연간 ₩300,000의 추가적 원가가 발생한다.

② 직접재료는 (주)세무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당 ₩10,000에 30개의 장비를 제조해주겠다는 외주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③ 연간 ₩550,000의 추가원가를 투입하여 설치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설치부서의 연간 설치수량을 50개 더 증가시킨다.

④ 장비는 (주)세무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당 ₩12,000에 30개의 장비설치를 해주겠다는 외주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⑤ 연간 ₩700,000의 추가원가를 투입하여 오류 설치수량을 연간 20개 줄인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설치부서가 제약자원일 때 각 개선안의 증분 처리공헌이익과 추가 운영비용을 비교하여 영업이익의 증감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설치부서의 연간처리능력은 300개로 제조부서의 400개보다 작으므로 설치부서가 제약자원이다. 정상 제품 1개를 추가 판매할 때의 처리공헌이익은 판매가격 40,000원에서 직접재료원가 30,000원을 뺀 10,000원이다. 직접재료원가 외의 원가는 고정되어 있지만, 각 선지에서 명시한 추가 원가는 의사결정에 포함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Delta OI = \Delta T - \Delta OE$

여기서 ΔOI는 증분 영업이익, ΔT는 증분 처리공헌이익, ΔOE는 추가 운영비용이다. 제약자원의 처리능력 또는 양품 산출량을 늘릴 때에만 추가 판매가 가능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정상 제품 1개의 증분 처리공헌이익은 40,000원 - 30,000원 = 10,000원이다.
① 20개의 처리공헌이익 200,000원 - 추가 원가 300,000원 = 영업이익 100,000원 감소이다.
② 제조부서는 이미 100개의 여유능력이 있고 설치부서가 제약자원이므로 외주 제조 30개는 추가 판매를 만들지 못하고 외주원가 300,000원만 발생시킨다.
③ 50개의 처리공헌이익 500,000원 - 추가 원가 550,000원 = 영업이익 50,000원 감소이다.
④ 외주 설치 30개로 얻는 처리공헌이익 300,000원 - 외주원가 360,000원 = 영업이익 60,000원 감소이다.
⑤ 오류 설치 20개를 양품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이미 투입되던 직접재료원가는 증가하지 않고 매출액이 800,000원 증가한다. 따라서 800,000원 - 추가 원가 700,000원 = 영업이익 100,000원 증가이다.

선지 판단

① X. 설치수량 20개 증가로 생기는 처리공헌이익은 200,000원인데 추가 원가는 300,000원이므로 영업이익이 100,000원 감소한다. '영업이익 증가를 위해 취하는 행동'이 아니며, 올바르게는 추가 원가가 200,000원보다 작을 때 채택한다.
② X. 제조부서는 100개의 여유능력이 있는 비제약부서이므로 제조 30개를 외주화해도 제약인 설치수량과 판매량은 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외주 제안을 거절하고 설치부서의 제약을 개선한다.
③ X. 설치수량 50개 증가에 따른 처리공헌이익은 500,000원이지만 추가 원가는 550,000원이므로 영업이익이 50,000원 감소한다. 올바르게는 추가 원가가 500,000원보다 작을 때 채택한다.
④ X. 외주 설치로 30개를 추가 판매해도 개당 처리공헌이익 10,000원보다 외주 설치비 12,000원이 더 크므로 영업이익이 60,000원 감소한다. 올바르게는 개당 외주 설치비가 10,000원보다 작을 때 채택한다.
⑤ O. 오류 설치 20개를 줄이면 폐기되던 20개가 판매 가능한 양품이 된다. 두 대안 모두 해당 장비의 직접재료가 이미 투입되므로 증분 효익은 20개의 판매가격인 800,000원이며, 추가 원가 700,000원을 빼면 영업이익이 100,000원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⑤에서 오류 감소의 효과를 일반적인 추가 생산과 동일하게 보아 개당 처리공헌이익 10,000원만 적용하면 안 된다. 오류품에도 직접재료원가가 이미 발생하므로 오류품을 양품으로 바꾸는 경우의 증분 효익은 개당 판매가격 40,000원이다. 또한 제조부서의 여유능력을 늘리는 ②는 설치부서라는 제약을 해소하지 못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제약부서를 찾고, 제약 개선으로 늘어나는 양품 판매량을 계산한 뒤 증분 처리공헌이익에서 명시된 추가 원가를 차감한다. 오류품 감소안에서는 직접재료가 대안 간 추가로 발생하는지 확인하여 판매가격 전체가 증분 효익인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제약 개선은 '늘어난 처리공헌이익 - 추가 운영비용'으로 판단하고, 이미 재료가 투입된 오류품을 양품으로 전환하면 판매가격 전체가 증분 효익이 된다.

NoteBase

문 40. (주)세무는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각 사업부의 EVA(경제적부가가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사업부 중 한 곳인 남부사업부의 재무상황은 총자산 ₩2,000,000, 유동부채 ₩500,000, 영업이익 ₩400,000이다. (주)세무의 두 가지 자금원천 중 하나인 타인자본의 시장가치는 ₩6,000,000이고, 그에 대한 이자율은 10%이다. 나머지 원천인 자기자본의 시장가치는 ₩9,000,000이고 그에 대한 자본비용은 15%이다. (주)세무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40%이다. 각 사업부의 EVA 계산은 기업전체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적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산된 남부사업부의 EVA는?

① ₩58,000

② ₩69,000

③ ₩72,000

④ ₩74,000

⑤ ₩78,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후영업이익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차감하여 경제적부가가치(EVA)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총자산 2,000,000원, 유동부채 500,000원, 영업이익 400,000원, 타인자본 시장가치 6,000,000원, 자기자본 시장가치 9,000,000원, 타인자본 이자율 10%, 자기자본비용 15%, 법인세율 40%이다.
구해야 할 값: 남부사업부의 EVA이다.
주의할 조건: 영업이익은 법인세 차감 후 금액으로 바꾸고, 타인자본비용에도 절세효과를 반영한다. 이 문항의 투하자본은 총자산에서 제시된 유동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EVA=세후영업이익(NOPAT)-(투하자본×WACC)
NOPAT=영업이익×(1-법인세율)
WACC $= \frac{D}{D+E}k_d(1-t) + \frac{E}{D+E}k_e$
이 공식을 쓰는 이유: EVA는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세후이익이 그 영업에 투입된 자본의 기회비용을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세후영업이익은 $400{,}000 \times (1 - 0.40) = 240{,}000$원이 된다.
2. 기업 전체의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은 $\frac{6}{15} \times 0.10 \times (1 - 0.40) + \frac{9}{15} \times 0.15 = 0.114$, 즉 11.4%이다.
3. 남부사업부의 투하자본은 $2{,}000{,}000 - 500{,}000 = 1{,}500{,}000$원이다.
4. 자본비용은 $1{,}500{,}000 \times 0.114 = 171{,}000$원이다.
5. 따라서 EVA는 $240{,}000 - 171{,}000 = 69{,}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58,000원은 계산된 EVA 69,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58,000원은 69,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세후영업이익 240,000원에서 자본비용 171,000원을 차감한 69,000원과 일치한다.
③ X — 72,000원은 계산된 EVA 69,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72,000원은 69,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74,000원은 계산된 EVA 69,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74,000원은 69,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78,000원은 계산된 EVA 69,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78,000원은 69,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영업이익 400,000원을 그대로 EVA 계산에 쓰거나, 타인자본비용 10%에 법인세 절세효과를 반영하지 않거나, 총자산 2,000,000원을 투하자본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이 문항에서는 NOPAT 240,000원, 세후 WACC 11.4%, 투하자본 1,500,000원을 각각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EVA 계산형은 먼저 영업이익을 NOPAT로 전환하고, 다음으로 타인자본비용을 세후로 조정하여 WACC를 구한 뒤, 투하자본에 WACC를 곱한 자본비용을 NOPAT에서 차감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EVA는 '세후영업이익 − 투하자본 × 세후 WACC'이다.

NoteBase